

# 韓半島 南部地域 青銅器~三韓時代 環濠遺蹟의 變化와 性格에

Attributes of Surrounding Moat Remain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and Their Changes during the Bronze Age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Korea

李 秀 鴻

LEE Soo-Hong

머리말

① 遺蹟의 檢討

② 環濠의 分類

③ 青銅器時代의 環濠

④ 三韓時代의 環濠

⑤ 環濠發生과 變化의 社會的 意味

맺음말

## [論文要旨]

本稿에서는 韓半島南部地域에서 現在까지 調査된 青銅器時代~三韓時代의 環濠 48 곳을 검색하여 環濠의 時期別 特徵과 性格, 變化의 傾向性에 대해서 檢討하였다.

韓半島南部地域에서 環濠는 青銅器時代 前期에 登場하는데 淸原 大栗里遺蹟 1 곳에서 확인되었다. 폭이 좁은 3列의 溝가 等高線 方向으로 曲走하는 형태이다. 出土遺物을 통해서 볼 때 遼寧地域에서 직접 移住한 移住民 집단이 築造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青銅器時代 環濠의 發生 및 擴散된 시기는 青銅器時代 後期이다. 青銅器時代 後期에는 大部分 嶺南地域에 環濠가 集中的으로 分布하는데 地域적으로 差異點이 看取된다. 蔚山圈은 모두 丘陵에 분포하며 一列로 마을을 一周하는 형태가 많다. 地形과 立地的인 特征을 통해서 볼 때 儀禮空間을 區劃하는 성격으로 판단된다. 環濠와 環濠가 보이는 집락의 結合體를 據點集落으로 파악하였다. 浦州圈은 주로 沖積地의 大規模 集落에 環濠가 분포한다. 木柵과 결합된 경우도 있어 防禦, 境界의 기능이 강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戰爭에 의한 防禦만이라는 것은 아니고 野生動物과 같은 猛獸의 위협에 대비한 시설일 수도 있다. 環濠가 大規模集落地에 설치되기 때문에 據點集落의 指標가 되는 것은 蔚山圈과 동일하다.

青銅器時代 環濠의 發生은 前期와 後期の 劃期가 된다. 大規模 土木工事인 環濠 築造를 가능하게 하는 有力個人的 登場을 유추할 수 있다.

三韓時代 前期에는 全國적으로 環濠遺蹟이 분포한다. 이 때는 儀禮遺構로서의 의미가 極大化된다. 一列의 主 環濠 外部에 같은 방향의 小形 溝를 중첩시키는 것이 一般的인 형태이다. 山의 頂上部에 圓形으로 설치되는 예가 많다.

三韓時代 後期에는 環濠遺蹟의 숫자가 急減한다. 木柵과 結合되기도 하고 環濠의 幅이 넓어지기도 한다. 社會的 緊張에 의한 防禦의 성격이 강해지는 것 같다. 三韓時代 後期에 環濠가 急減하는 것은 中國이나 高句麗로부터 土城이 전래된 점, 各地의 國이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地域 小單位인 環濠集落地가 大單位로 統合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主題語】 淸동기~삼한시대, 환호, 분류와 편년, 기능론

## 序言

1990 年慶尙南道蔚山檢丹里遺蹟에서 韓國 最初로 마을을 一周하는 環濠가 調査된 것이 韓國에서 環濠遺蹟의 調査研究의 始初가 되었다. 1995 年檢丹里遺蹟의 報告書가 刊行되었고 1996 年부터 始作된 慶尙南道 晉州 南江댐 水沒地區의 大坪里遺蹟의 調査는 環濠遺蹟 調査增加의 始發點이 되었다. 1998 年度에 開催된 嶺南考古學會 九州考古學會 合同學術大會의 主題가 ‘環濠遺蹟과 農耕社會의 形成’ 으로 正해질 정도로 環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意外로 環濠에 대한 研究는 미진한 편이다. 李盛周와 裴德煥의 研究 以外에는 環濠만을 主題로한 研究가 거의 全無한 실정이며 大部分 다른 內容 중에 環濠에 대해 간략하게 論者의 見解를 제시한 정도이다. 筆者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環濠의 機能에 淸查하여 그것이 防禦인가 儀禮인 가 라는 단순한 구도로 접근하였던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地形(立地), 規模, 內部施設 등에 따라 機能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大部分의 遺蹟에서 環濠의 一部分만 調査되기 때문에 全貌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一部分만 調査되면 閉曲線으로 一周하는 것인지 一字形으로 종결되는 형태인지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셋째는 出土遺物이 빈약해 環濠 內外의 어떤 遺構와 同時에 存在했는지가 明確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제 韓國에서 環濠遺蹟이 調査된 사례는 50 여 곳을 초과하였고 靑銅器時代 以後의 環濠도 많이 調査되어 環濠의 時間的인 範圍도 넓어졌다. 現在까지 調査된 모든 環濠遺蹟을 通時的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筆者는 本稿에서 韓半島 南部地域에서 調査된 靑銅器時代 ~ 三韓時代의 環濠遺蹟을 集成하여 環濠의 時期別 特徵과 性格, 變化의 傾向性에 대해 檢討하고자 한다.

논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本稿의 時期區分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本稿의 時期區分

表 1 韓半島南部地域 靑銅器時代~三韓時代의 時期區分案

李白圭 등 (1974 年)	靑銅器時代前期			靑銅器時代後期		原三國時代	
藤口健二 등 (1986 年)	無文土器時代前期	中期	無文土器時代後期				
李弘鍾 (1996 年)	無文土器時代前期		無文土器時代後期				
	靑銅器時代			三韓時代			
安在皓 (2001 年)	早期	前期	後期	前期		後期	
				前半	後半	前半	後半
土器	突帶文土器	可樂洞式 欣岩里式	松菊里式 檢丹里式	円形粘土帶	三角形粘土帶	古式瓦質	新式瓦質
國立中央博物館 (2007 年까지)	靑銅器時代			初期鐵器時代		原三國時代	
日本	繩文時代		弥生時代				

은 青銅器時代를 早期-前期-後期로 分類하는 安在皓의 案을 따른다. 青銅器時代 이후의 時代名에 대해서는 韓國에서 粘土帶土器와 瓦質土器가 出土되는 단계를 각각 青銅器時代 後期-原三國時代, 初期鐵器時代-原三國時代, 三韓時代 前期-三韓時代 後期라는 세 가지 名稱이 使用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三韓時代라는 時代名을 使用하겠다. 本稿의 檢討對象은 青銅器時代부터 三韓時代까지이다. 時期區分案에 대한 諸見解는 <表 1>과 같다.

## ①.....遺蹟의 檢討

本稿에서는 青銅器時代부터 三韓時代까지의 環濠를 檢討하겠다. 三國時代에도 慶尙南道 梁山 多芳里貝塚의 下層에서 發見된 環濠로 알려진 溝, 咸安 道項里遺蹟, 慶尙北道 挑開 新林里遺蹟 등에서 環濠가 확인되었지만 이때는 이미 境界, 防禦의 機能으로는 城이 築造되고 儀禮의 意味 역시 先史時代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青銅器時代에서 三韓時代까지의 環濠는 現在까지 48 곳에서 調査되었다. 그 동안 環濠遺蹟으로 알려진 晋州 上村里遺蹟, 大邱 八達洞遺蹟, 蔚山 芳基里遺蹟, 蔚山 無去洞 玉峴遺蹟은 本稿의 檢討에서 除外하였다. 晋州 上村里遺蹟은 新石器時代의 環濠가 아니라 青銅器時代의 溝일 가능성이 높다. 報告書가 未刊이라 全貌를 알 수 없지만 平面形態나 規模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先史時代의 環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現在까지 新石器時代に 이런 형태의 溝가 調査된 예가 없고 周邊의 遺構를 綜合적으로 檢討한다면 신석기 시대의 유구로 보기는 어렵다. 上村里遺蹟의 調査 後 韓半島 南部地域의 環濠의 上限年代를 新石器時代 後期까지 올려보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인식은 再考되어야 한다. 蔚山 芳基里遺蹟은 環濠라고 發表된 溝의 內部堆積土 중 바닥에 가까운 7층에서 朝鮮時代 白磁가 檢出되었기 때문에 朝鮮時代의 溝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斷面形態나 平面과 斷面의 規格比率 등으로 볼 때도 一般의 先史時代의 環濠와는 異質의이다. 大邱 八達洞遺蹟에서 調査된 溝는 一部 研究者에 의해 環濠라고 報告되었다. 아직 報告書가 간행되지 않았지만 一部 刊行된 略式報告書에도 青銅器時代 環濠라는 언급은 없다. 平面形態는 圓形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等高線에 直交하는 部分이 많고 溝의 規模라든지 여러 가지 情狀으로 볼 때, 先史時代의 遺構가 아니라 近代의 施設일 가능성이 높다. 無去洞 玉峴遺蹟의 溝의 경우, 時期는 青銅器時代이지만 谷部에 等高線과 直交하게 一字形으로 築造되었는데 아래쪽의 水田에 用水를 供給하는 農耕用 水路라고 判斷되기 때문에 除外하였다. 이 외에도 一部 遺蹟은 環濠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최대한 發掘報告書의 記述을 존중하여 포함시켰다.

韓半島 南部地域에서 現在까지 調査된 48 遺蹟 중 青銅器時代 環濠遺蹟이 27 곳, 三韓時代 環濠遺蹟이 21 곳이다.

青銅器時代 環濠는 大部分 嶺南地域에 集中的으로 分布한다. 과거에는 湖南地域이나 江原地域 등 일정한 地域에 어떤 遺構가 分布하지 않는다면 개발로 인한 發掘사례가 적다고 생각하였지만 發掘資料가 增加한 現在의 상황에서는 무언가 意味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安在皓는 全南地域에 環濠가 分布하지 않고 支石墓가 상대적으로 많이 分布하는 것에 대해 全南地域이 오히려 嶺南地域에 비해 農耕社會로의 전환이 늦은 결과라고 하였다. 즉 支石墓의 築造는 勞動力이 많이 投入되기 때문에 農耕生活은 不可能하고 環濠가 많이 確認되는 嶺南地域이 支石墓에서 石棺墓로 전환되어 農耕이 활발하였다는 것이다. [安在皓 2006] 하지만 全南地域이 農耕에 더 적합한 環境이며 또 最近

에 嶺南地域에서 대단위 支石墓群이 調査되었기 때문에 再考의 여지가 있다.

이에 비해 三韓時代는 京畿地域과 嶺南地域에 고루 分布한다. 江原道 地域과 忠淸地域에서도 確認되었기 때문에 全國에 고루 分布할 可能性이 있다. 단 三韓時代 前期의 環濠遺蹟은 前期前半과 前期後半의 分布圈이 약간 차이가 있다. 三韓時代 前期前半에는 주로 中西部地域에 分布하고 三韓時代 前期後半이 되면 三角形粘土帶土器 分布圈인 東南海岸地域에서만 確認된다. 圓形粘土帶土器-中西部地域, 三角形粘土帶土器-東南地域이라는 토기의 분포권과 일치하지만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편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즉 원형점토대토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데 반해 삼각형점토대토기는 동남해안지역에만 분포하고 원형점토대토기와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시기는 겹치는 부분이 많은 계기적 선후관계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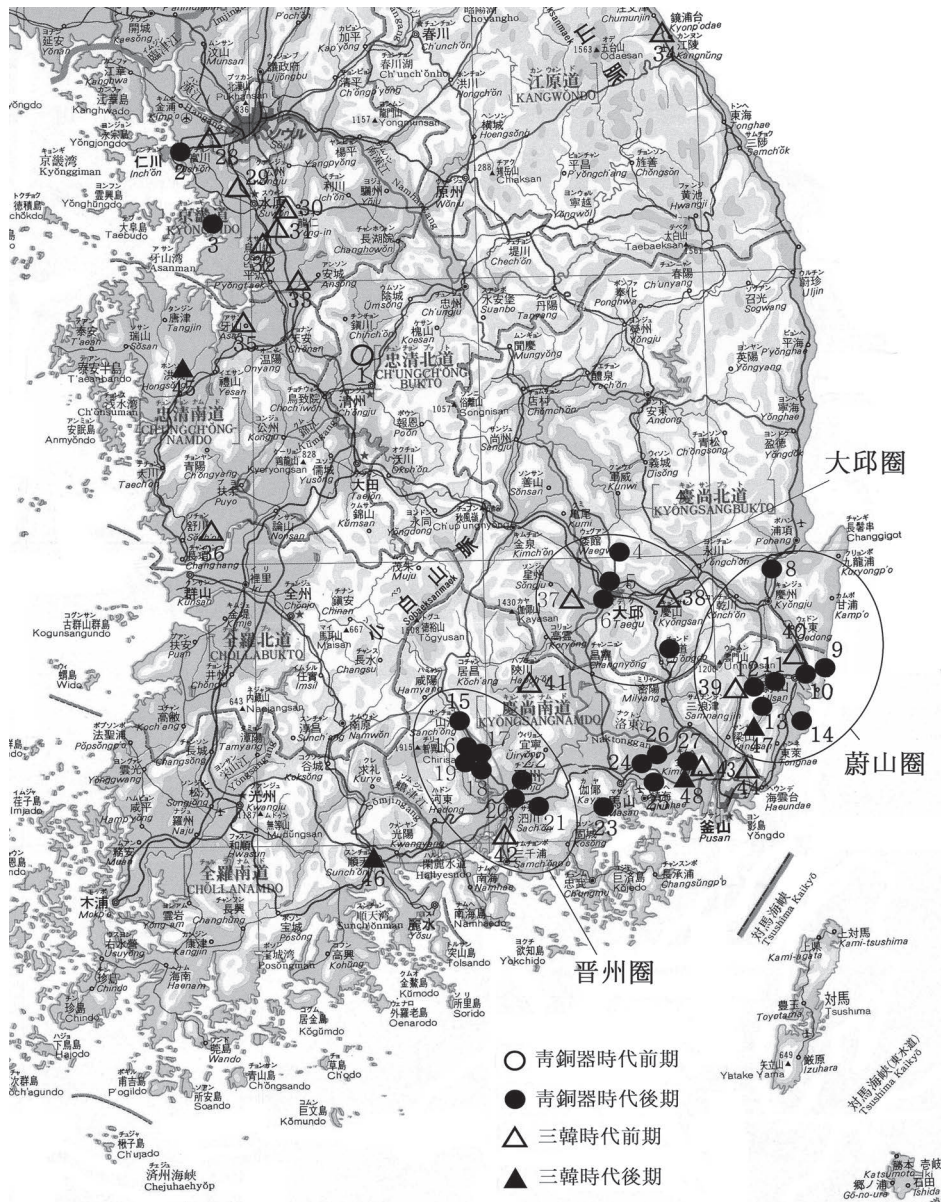


圖1 韓半島 南部地域 青銅器時代~三韓時代 環濠遺蹟 分布圖

表 2 韓半島 青銅器時代~三韓時代 環濠 一覽表 (番號는 圖 1 과 一致)

番號	時代	遺蹟	立地	列	平面形態	內部施設	調査機關	分類	備考	
1	青銅器時代 前期	清原大栗里	山頂	3列	不定形	住居址	中央文化財研究院	C		
2	青銅器時代 後期	仁川文鶴洞	丘陵	1列	一字形		仁荷大學校博物館	E		
3		華城雙松里	山頂	1列	圓形	無	畿湖文化財研究院	A1		
4		大邱東川洞	平地	1列	不定形	住居址	嶺南文化財研究院	E	水路?	
5		大邱月城洞	平地	2列	不定形		嶺南文化財研究院	?		
6		大邱大泉洞	平地	1列	弧形		嶺南文化財研究院	D		
7		清道松邑里	平地	2列	弧形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E		
8		慶州錫杖洞	丘陵	1列	?	?	東國大學校 博物館	?		
9		蔚山新峴洞	丘陵	1列	現一字形	?	中央文化財研究院	?		
10		蔚山蓮岩洞	丘陵	2列	圓形	無	慶南文化財研究院	B2		
11		蔚山川上里	丘陵	1列	橢圓形	住居址	嶺南文化財研究院	A1		
12		蔚山新華里	丘陵	1列	弧形		蔚山文化財研究院	D		
13		蔚山檢丹里	丘陵	1列	橢圓形	住居址, 溝	釜山大學校 博物館	A1		
14		蔚山明山里	丘陵	1列	抹角三角形	住居址?	蔚山文化財研究院	A1		
15		青銅器時代 後期	山清玉山里	平地	1列	橢圓形	住居址	釜山大學校 博物館 慶尙大學校 博物館	A1	報告書未刊
16			山清沙月里	丘陵	2列	半圓形	住居址, 堅穴	釜慶大學校 博物館	B1	
17	山清沙月里		丘陵	1列	弧形?	住居址, 堅穴	東義大學校 博物館	D		
18	大坪玉房 1, 7地區		平地	1列, 2列	(楕)圓形	住居址	慶南考古學研究所 慶南文化財研究院 晉州博物館	B1	木柵斗 結合	
19	大坪玉房 4地區		平地	2列	現L字形	住居址	東義大學校 博物館	B1	報告書未刊	
20	晉州加虎洞		平地	1列	弧形?	住居址	東西文物研究院	?		
21	晉州耳谷里		平地	1列	抹角方形	住居址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A1		
22	晉州草田洞		平地	1列	一字形	住居址	韓國文物研究院	?		
23	馬山網谷里		平地	1列	橢圓形?	住居址, 墓	慶南發展研究院	A1		
24	昌原南山		山頂	多重	橢圓形	住居址	昌原大學校 博物館	A1	報告書未刊	
25	昌原上南	平地	2列	弧形		昌原文化財研究所	B1			
26	昌原德川里	丘陵	1列	弧形?		慶南大學校 博物館	E	報告書未刊		
27	金海大成洞	平地	2列	?	?	慶南文化財研究院	B1?			
28	三韓時代 前期	富川古康洞	山頂	1列	圓形	集石	漢陽大學校 博物館	A2		
29		水原栗田洞	丘陵	1列	不定形	堅穴 4기	畿田文化財研究院	D		
30		華城東鶴山	丘陵	3列	圓形	堅穴, 爐跡	畿田文化財研究院	C		
31		烏山佳長洞	丘陵	1列	不定形	堅穴	畿田文化財研究院	D		
32		烏山樓邑里	丘陵	1列	橢圓形?		겨레文化財研究院	D	報告書未刊	
33		安城盤諸里	山頂	2列	圓形	自然마위	畿田文化財研究院	A2		
34		江陵芳洞里	丘陵	2列	弧形	住居址	江原文化財研究院	A2		
35		牙山上星里	丘陵	1列	圓形?	?	忠清文化財研究院	A2		
36		舒川月岐里	丘陵	1列	橢圓形?	住居址?	韓國考古環境研究所	A1		
37		星州上彥里	丘陵	1列	不定形	柱穴	慶北文化財研究院	E		
38		慶山林堂	平地	2列	弧形	?	嶺南文化財研究院	B1		
39		蔚山校洞里	丘陵	2列	圓形	?	蔚山文化財研究院	A2		
40		蔚山達川	丘陵	1列	不定形	採鑛場	蔚山文化財研究院	D		
41		陝川盈倉里	山頂	3列	弧形	住居址, 堅穴	慶南考古學研究所	C		
42		泗川莠芝里	丘陵	2列	橢圓形?	住居址, 堅穴	慶南發展研究院	C		
43		金海大成洞	平地	1列	一字形?		慶星大學校 博物館	D	報告書未刊	
44		釜山溫泉洞	丘陵	2列	圓形	住居址, 木棺	釜山博物館	B2	報告書未刊	
45		三韓時代 後期	洪城石宅里	丘陵	3列	橢圓形	住居址	한얼文化遺產研究院	C	
46	順天德岩里		山頂	多重	橢圓形	住居址	南道文化財研究院	C		
47	梁山平山里		丘陵	1列	橢圓形	住居址	東亞大學校 博物館	D	木柵斗 結合	
48	金海鳳凰臺		丘陵	?	橢圓形?		釜山大學校 博物館	C	試掘調査	

## ②.....環濠의 分類

48 곳의 環濠遺蹟을 平面形態, 環濠列의 數를 基準으로 分類해보았다.

A 형은 1 列이며 入口部를 除外하면 閉曲線으로 연결된 完結된 形態의 環濠이다. A1 형은 丘陵 혹은 集落을 감싸듯이 一周하는 形態로 設置된 것이다. A1 형은 가장 기본적인 形態이다. 구릉이나 집락의 형태에 따라 환호의 모양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大部分 橢圓形에 가깝다. A2 형은 굴착되지 않은 육교부가 없이 완전한 형태의 閉曲線을 이루는 것이다. 대부분 圓形이나 抹角 方形에 가까운 形態이다. 三韓時代는 環濠 外側에 環濠와 같은 方向으로 小形 溝가 동반되는 것도 포함한다.

B 형은 A 형과 유사하지만 2 열로 구성된 것이다. B1 형은 閉曲線인지 明確하지 않지만 일정한 空間을 포위하는 形態로 생각되는 遺蹟은 포함시켰다. B2 형은 2 열 環濠 중 平面形態가 圓形에 가까운 것이다.

C 형은 3 열 이상이 중첩된 것이다. 出入口를 除外하면 閉曲線의 形態를 띠는 것도 있고 丘陵의 一部分 구를 돌린 것도 있다.

D 형은 1 열의 環濠인데 丘陵에 立地하는 경우 韓國에서 包谷形이라 하는 것으로 閉曲線이 아니고 等高線과 나란하게 曲走하는 形態이다.

E 형은 大部分 1 列인데 丘陵의 形態와 관계없이 不定形으로 設置된 것이다. 東川洞遺蹟의 경우 복수의 列이지만 正형하지 않아 包含시켰다.

이상의 分類를 模式圖로 나타내면 <表 3> 과 같다. 一部分 發掘되어 全貌를 알 수 없는 遺蹟은 除外하였다. 類型별로 檢討하면 다음과 같다.

A1 형은 우리가 인식하는 가장 一般的인 環濠形態이다. 大部分 青銅器時代에 속한다. 月岐里遺蹟은 報告書에서 內部에 存在하는 青銅器時代 住居와 비슷한 時期라고 하였지만 粘土帶土器가 出土되었고 AMS 年代 結果도 住居에 후행하기 때문에 三韓時代 前期로 判斷하였다. 하지만 A1 형은 青銅器時代가 中心年代라고 할 수 있다. A2 형 즉 陸橋와 같은 出入口가 없이 完結인 丘陵, 혹은 일정지역을 閉曲線으로 감싸는 형태는 三韓時代에 出現한다고 할 수 있다. 1 열 環濠 중 陸橋의 有無는 時期區分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A2 형은 前期의 典型的인 形態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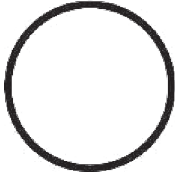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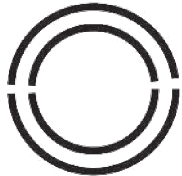



B1 형은 同一한 폭의 2 열 環濠인데 三韓時代는 林堂遺蹟이 유일하다. 林堂遺蹟이 青銅器時代 環濠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것으로 判斷된다. B2 형은 內部에 住居가 전무한 것이 特徵이다.

C 형의 경우 大栗里遺蹟에서 앞서 언급하였듯이 移住民集團에 의해 築造된 것이라면 三韓時代가 中心年代라고 할 수 있다. 3 列 이상의 복열이지만 溝의 폭이 좁아 觀念化 된 것이다. 단 三韓時代 後期가 되면 溝의 폭이 넓어진다.

D 형은 青銅器時代 沙月里(東義大) 遺蹟이 있지만 中心年代는 三韓時代前期이다. C 형과 마찬가지로 溝의 폭이 좁다. 平山里遺蹟은 木柵과 결합되었는데 環濠는 깊이가 얇아 機能이 축소되고 木柵이 주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判斷된다.

E 형은 수로에 가깝기 때문에 曖昧한 意味에서 環濠가 위의 A~D 형과는 다른 性格으로 環濠가 아닐 可能性이 높은 것이다.

表 3 環濠遺蹟 分類 模式圖

分類	模式圖	遺蹟			
		青銅器時代		三韓時代	
		前期	後期	前期	後期
A1			川上里, 檢丹里, 明山里, 玉山里, 南山, 耳谷里, 網谷里, 雙松里	月岐里	
A2				古康洞, 盤諸里, 芳洞里, 上星里, 校洞里	
B1			沙月里(釜慶大), 大坪里, 上南	林堂	
B2			蓮岩洞	溫泉洞	
C		大栗里		東鶴山, 盈倉里, 芳芝里	石宅里, 德岩里, 鳳凰臺
D			大泉洞, 新華里, 沙月里(東義大)	栗田洞, 樓邑里, 佳長洞, 大成洞, 達川	平山里
E			文鶴洞, 松邑里, 德川里, 東川洞	上彥里	

이러한 分類를 바탕으로 ③, ④장에서는 時期別로 檢討하였다.

### ③……………青銅器時代의 環濠

青銅器時代의 環濠 27개 遺蹟 중 淸原 大栗里遺蹟이 前期에 속하고 나머지는 後期에 속한다. 報告書에 의하면 淸原 大栗里遺蹟 이외에도 前期로 보고된 環濠가 있지만 筆者는 後期라고 判斷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編年에 대한 檢討와 함께 青銅器時代의 環濠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1. 編年の 再考 및 前期의 環濠

考古學에서 遺構의 性格이나 紀元을 밝히기 위해서는 編年이 重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른 時期로 잘못 이해되어서는 기원의 문제부터 발전과정까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前期로 보고된 雙松里遺蹟의 環濠의 編年에 대해 再檢討하였다.

華城 雙松里遺蹟은 丘陵 頂上部에 圓形의 環濠가 設置된 A2 형이다. 環濠 아래쪽에 住居 36 기가 分布한다. 住居의 平面形態는 36 기 중 細長方形이 3 기이고 나머지는 모두 長方形, 方形이다. 보고자는 住居와 環濠를 모두 同時期로 判斷하고 遺蹟 全體를 前期로 編年하였다. 하지만 筆者는 36 기의 住居는 당연히 時期差異가 있으며 엄밀히 前期에 속하는 것은 細長方形인 6 號, 26 號, 33 號 住居 3 기 뿐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모두 後期에 속한다. 環濠內에서 前期의 標紙인 遺物인 孔列文과 口唇刻木이 結合된 驛三洞式土器片和 臺附小壺의 臺脚이 出土되었지만 最近의 傾向에 의하면 驛三洞式土器는 後期에도 出土되기 때문에 이 遺物만으로 前期로 判斷할 수 없다. 環濠에서 出土된 石鏃 역시 身部가 菱形인 것도 있기 때문에 後期에 出土되는 一段莖式일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表 4〉는 雙松里遺蹟의 AMS 年代 測定結果이다. 環濠의 測定結果가 다른 住居에 비해 늦기 때문에 環濠가 住居와 同時期가 아니며 오히려 늦은 것으로 判斷해야 한다. 筆者는 環濠의 平面形態가 圓形으로 正형화한 점, 양쪽에 出入口가 마련된 점 등으로 볼 때 오히려 後期の 늦은 단계일 것으로 判斷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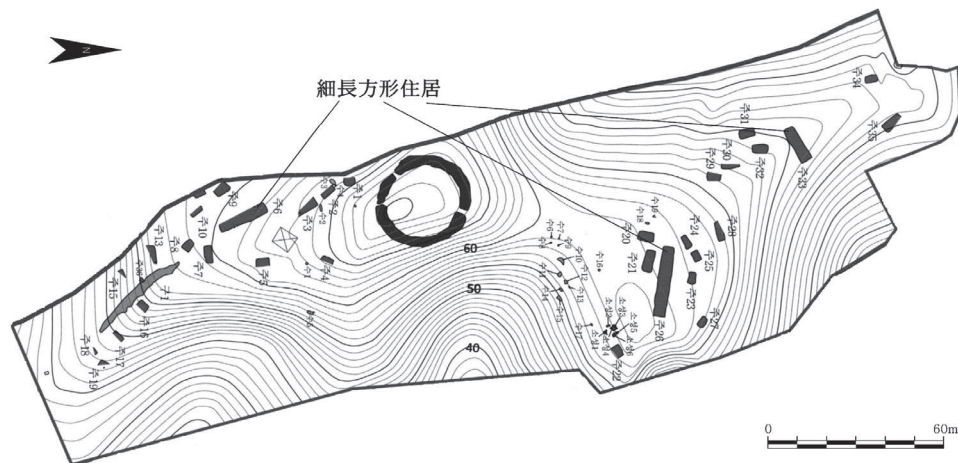


圖 2 雙松里遺蹟 配置圖



慶尙南道 晉州 耳谷里遺蹟은 住居, 墓와 함께 抹角方形의 環濠(A1형), 環濠로 연결되는 直線의 溝 등이 調査되었다. 發掘調査 現場說明會 資料에는 環濠로 연결되는 直線의 溝를 前期의 環濠, 抹角方形의 環濠를 後期の 環濠라고 하였으나 정식으로 刊行된 報告書에는 環濠로 연결되는 直線의 溝를 環濠라는 용어를 使用하지 않고 大形溝라 命名하였다. 耳谷里遺蹟에서 圓形의 松菊里型住居는 確認되지 않았기 때문에 抹角方形의 環濠는 休岩里式住居 段階(後期 前半)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耳谷里遺蹟에서 青銅器時代 前期後半의 무덤이 調査되었지만 이 遺蹟이 것처럼 오랜 세월의 기간 동안 존속했는지에 대해서는 疑問이며 環濠를 포함하여 中心年代는 後期라고 할 수 있다.

결국 韓半島 南部地方에서 現在까지 確認된 環濠遺蹟은 忠淸北道 淸原 大栗里遺蹟 1 개소 뿐이다.

表 4 雙松里遺蹟 AMS年代

遺構	測定年代(BP)	遺構	測定年代(BP)
1號住居	2860 ± 50	25號住居	2640 ± 50
3號住居	2660 ± 50		2750 ± 50
6號住居	2890 ± 50	26號住居	2710 ± 50
	2770 ± 50		2740 ± 50
9號住居	2780 ± 50	28號住居	2760 ± 50
13號住居	2740 ± 50	29號住居	2630 ± 50
14號住居	2640 ± 50	33號住居	2780 ± 50
15號住居	2900 ± 50		2840 ± 50
20號住居	2720 ± 50	34號住居	2920 ± 60
21號住居	2850 ± 50	35號住居	2700 ± 50
23號住居	2760 ± 50	環濠	2620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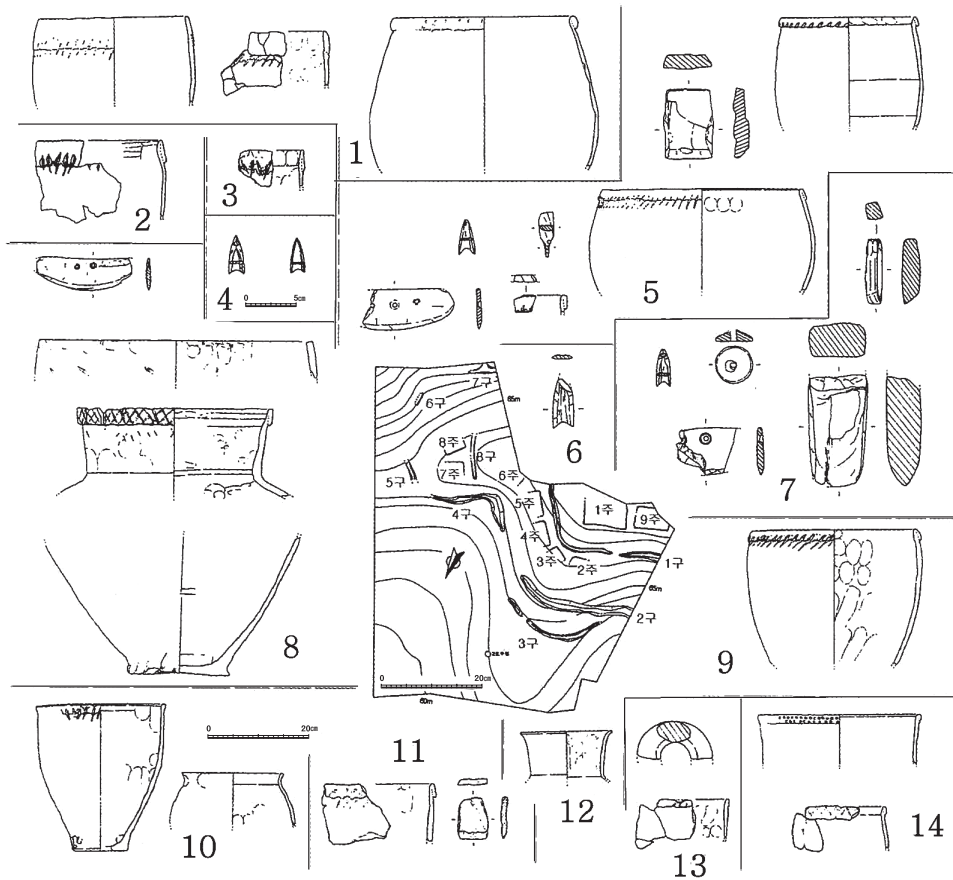


圖 3 大栗里遺蹟 出土遺物

1: 5號住, 2: 7號溝, 3: 6號溝, 4: 8號住, 5: 1號住, 6: 6號住, 7: 9號住, 8: 7號住, 9: 1號溝, 10: 4號溝, 11: 4號住, 12: 3號住, 13: 2號溝, 14: 2號住 (安在皓 2009에서)

大栗里遺蹟의 環濠는 丘陵의 頂上部에 位置하는데 3 重의 環濠가 等高線을 따라 設置된 C 형이다. 環濠 內外部에 住居 9 동이 分布한다. 環濠와 住居에서 二重口緣 + 短斜線이 새겨진 深鉢形土器와 함께 二重口軟內에 鋸齒文, 二重의 點列文이 시문된 土器 등이 出土되었다. 二重口緣 + 短斜線土器 역시 기존의 可樂洞式土器와는 異質的이다. 斷面 凹狀의 短身鏃은 中國東北地方 石器의 特徵이라고 한다. [安在皓 2009] 즉 大栗里遺蹟을 조성한 사람들은 재지민이 아니라 中國 東北地方에서 직접 移住한 移住民 集團이라는 見解이다. 土器의 文樣과 石器의 造成을 통해서 볼 때 타당한 見解라고 생각된다. 大栗里遺蹟 이외에 前期末의 環濠遺蹟이 確認되지 않는 점 뿐만 아니라 靑銅器時代 後期에도 C 形 環濠가 確認되지 않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在地民에 의한 본격적인 環濠築造는 現在까지의 資料로 볼 때는 後期라고 할 수 있고 環濠築造 및 擴散은 靑銅器時代 後期의 指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後期 環濠의 特徵—地域相과 機能

靑銅器時代 後期의 環濠는 26개 遺蹟에서 調查되었다. 京畿道의 두 곳을 除外하면 모두 嶺南地域에서만 調查되었다. 仁川 文鶴洞遺蹟은 丘陵의 一部만 調查되어 全貌를 알 수 없지만 調查된 環濠는 丘陵의 谷部를 따라 等高線과 直交하게 一字形으로 掘鑿된 E 形이다. 蔚山 無去洞 玉峴遺蹟의 溝와 유사하기 때문에 集落을 두르는 典型的인 環濠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華城 雙松里遺蹟에서 環濠가 調查되었기 때문에 中部地域에서도 앞으로 資料가 增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現在로서는 嶺南地域이 主 分布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節에서는 靑銅器時代 後期의 環濠遺蹟에서 看取되는 地域相과 環濠의 機能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1) 地域相

韓半島 南部地域에서 靑銅器時代 後期는 松菊里文化의 發生과 擴散이 가장 큰 特徵이며 編年의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松菊里文化는 韓半島 全體에 分布하는 것이 아니라 京畿南部와 東南海岸地域을 弧狀으로 연결되는 線의 南西쪽에 分布한다. 韓半島 全體를 통해서 본 다면 오히려 松菊里文化가 異質的이라 할 수 있다. 松菊里文化가 分布하지 않는 地域을 筆者는 檢丹里文化分布圈이라 命名하였다. [李秀鴻 2010] 檢丹里文化 分布圈內에는 文化의 下位概念으로서 네 개의 類型이 存在한다. 松菊里文化分布圈內에도 다양한 類型이 存在할 것이다.

檢丹里文化分布圈은 松菊里文化分布圈에 비해 相對的으로 前期의 文化가 강하게 이어지는 것이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嶺南地域 역시 圖 4 와 같이 松菊里文化分布圈과 檢丹里文化分布圈은 區分되며 住居, 墓, 土器 등 考古學的으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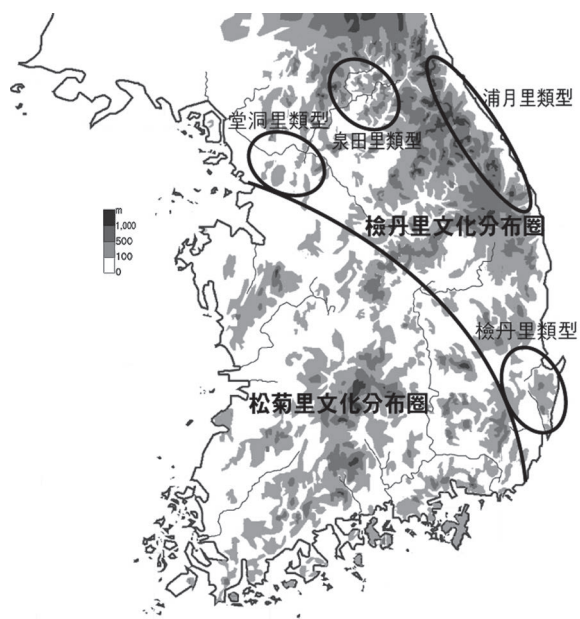


圖 4 韓國 靑銅器時代 後期의 地域相

뚜렷한 差異가 看取된다. 하지만 嶺南地域에 密集되어 있는 環濠는 松菊里文化分布圈과 檢丹里文化分布圈에서 모두 確認되는 것이 이채롭다.

하지만 嶺南地域에서도 地域相이 看取된다. 洛東江의 支流인 南江과 南江의 支流인 鏡湖江流域圈의 慶尙南道 晉州圈, 역시 洛東江의 支流인 琴湖江 流域의 大邱圈, 東南海岸地域의 蔚山圈으로 區分할 수 있다. 晉州圈과 蔚山圈 사이의 金海 昌原地域에서도 5 곳에서 環濠가 調査되었지만 南山遺蹟은 報告書가 未刊이며 그 외의 4 곳은 一部區間만 調査되어 全貌를 알 수 없어 다음 기회에 논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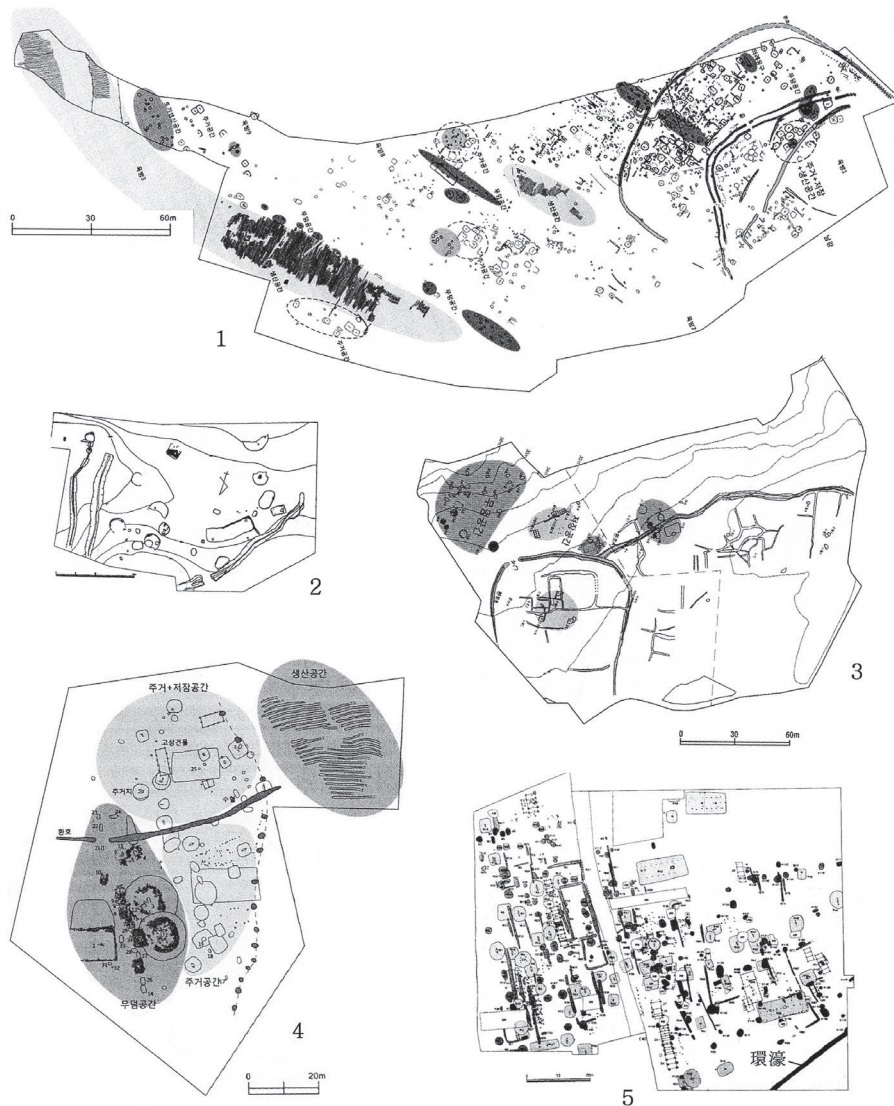


圖 5 晉州圈의 環濠遺蹟

- 1: 晉州 大坪里遺蹟, 2: 山淸 沙月里遺蹟(釜慶大), 3: 晉州 耳谷里遺蹟, 4: 晉州 加虎洞遺蹟,  
5: 晉州 草田洞遺蹟 高旻廷 2010 에서 편집

晋州圈은 大規模의 集落이 江邊의 沖積地에 分布하고 江邊 沖積地의 大規模 集落은 環濠를 保有하고 있다. 이 地域에서 調査된 環濠遺蹟은 모두 8 곳 중 山淸 沙月里遺蹟의 2 곳을 除外하면 모두 沖積地에서 環濠가 確認되었다. 形態는 모두 A1 형과 B1 형이다. 沖積地에서 調査된 環濠는 모두 大規模集落이며 多數의 住居, 무덤군, 堅穴, 耕作遺構 등과 함께 築造된다. 大坪里遺蹟의 環濠는 內部에 木柵이 設置되었다.

大邱圈은 洛東江의 支流인 琴湖江流域과 密陽江流域의 淸道地域이 해당된다. 이 地域에서도 모두 平地에서 確認되었다. 大泉洞遺蹟의 環濠는 弧狀으로 약간 둥근 一字形으로 D 형에 속한다.

環濠 周邊一帶가 比較的 넓게 調査되었지만 環濠의 全貌는 알 수 없다. 그 외에는 모두 E 형인 데 大邱와 淸道地域에서는 완전히 一周하는 環濠가 確認되지 않아 明確하지 않지만 環濠의 意味답게 일정한 空間을 두르는 意味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平面形態가 不定形이거나 弧形, 一字形인 데 엄밀한 意味에서 環濠인지 면밀히 檢討할 必要가 있다. 東川洞遺蹟의 溝는 環濠라기 보다는 水路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蔚山, 慶州를 비롯한 韓半島 東南海岸地域은 檢丹里文化分布圈인데 環濠가 調査된 7 遺蹟 모두 丘陵에서 確認되었다. 大部分 A1 형이다. 이 地域의 河川은 모두 폭이 좁고 길이가 짧아 沖積平野가 發達하지 못했다. 靑銅器時代에는 지금보다 海水面이 더 높았기 때문에 現在의 河川邊은 干潟地 혹은 濕地였기 때문에 集落의 立地로서는 물론이고 農耕에 適合한 土壤도 아니었다. 따라서 靑銅器時代 集落은 大部分 丘陵에 立地하는데 他 地域에 비해 靑銅器時代 遺蹟의 密集度는 높은 편이다.



圖 6 大邱圈의 東川洞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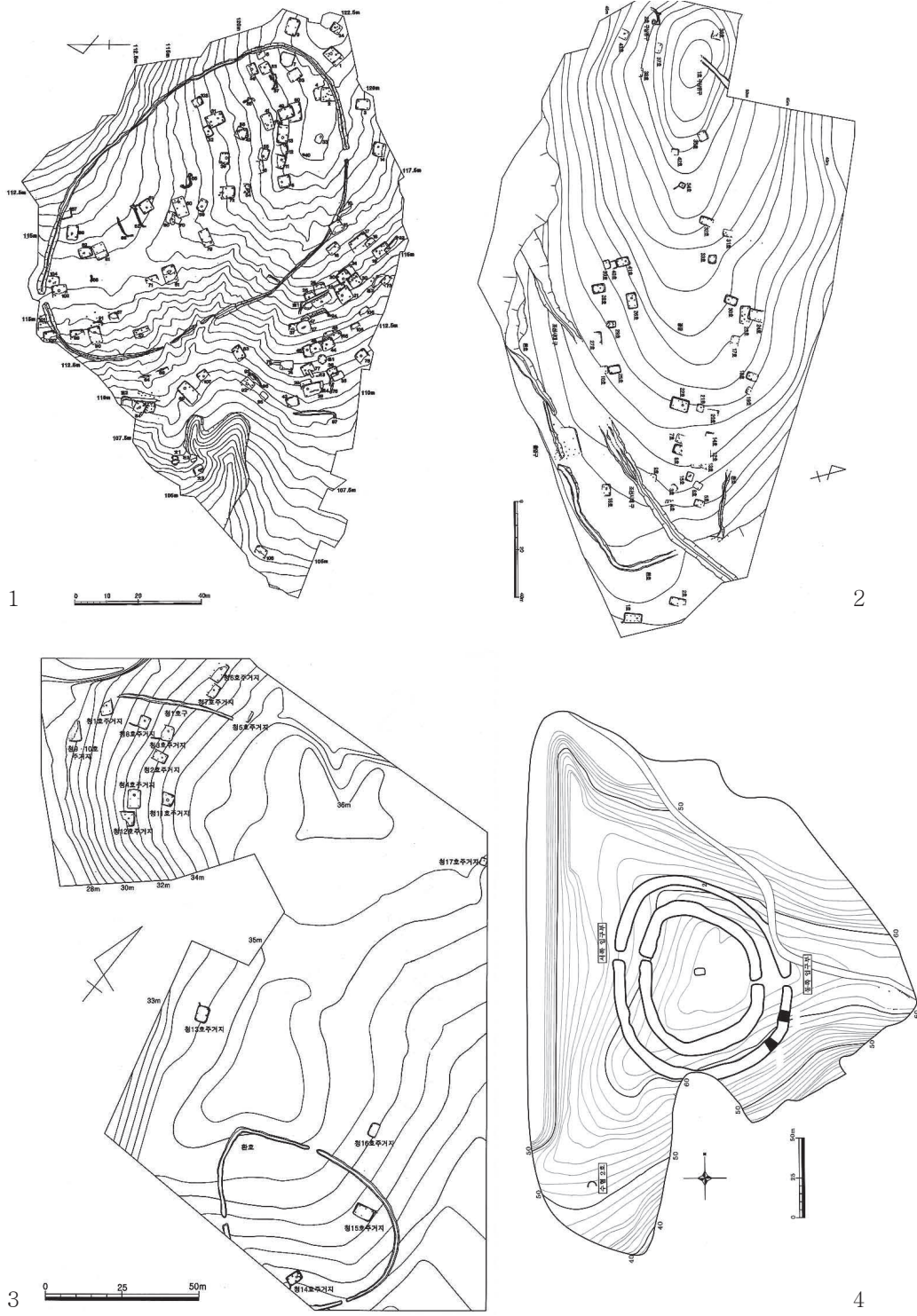


圖 7 蔚山圈의 環濠遺蹟

1：蔚山 檢丹里遺蹟， 2：蔚山 川上里遺蹟， 3：蔚山 明山里遺蹟， 4：蔚山 蓮岩洞遺蹟

## 2) 機能

蔚山 檢丹里遺蹟에서 처음으로 環濠가 調査되고 난 후 10 年 정도는 環濠가 防禦施設이라는 데에 특별히 異見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90 年代 以後 大規模 開發事業에 따른 發掘調査의 增加로 인해 資料가 축적되면서 점차 環濠의 防禦機能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너무 좁은 環濠의 幅, 단절된 部分, 環濠 內外에 住居가 分布하는 등 一般的인 防禦集落이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部分이 많이 감지되었다.

1990 年代 末 유럽의 環濠가 儀禮의 이고 象徵의인 空間이라는 見解가 소개되기도 하였다. [李盛周 1998] 裴德煥은 2000 년대까지 조사된 環濠遺蹟을 정리하여 環濠의 기능을 防禦, 境界, 排水, 儀禮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裴德煥 2000]. 境界라는 用語는 意味가 너무 포괄적이고 排水의 機能을 가진 溝를 環濠라는 名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후 2000 年代에 들어서는 점차 儀禮空間의 意味가 強調 [徐吉德 2006] 되고 있는 실정이다. 徐吉德은 첫째, 環濠의 幅과 깊이가 防禦의 役割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 둘째, 環濠의 內部空間에서 確認되는 住居의 數가 小數라는 점, 셋째, 食水原이 없는 점, 넷째, 意圖의으로 掘鑿하지 않는 部分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環濠가 防禦의 機能을 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筆者 역시 蔚山 地域의 環濠遺蹟을 檢討하면서 環濠는 儀禮場所이면서 據點集落의 指標라는 意見을 개진하였다. [李秀鴻 2012] 蔚山圈 環濠遺蹟의 性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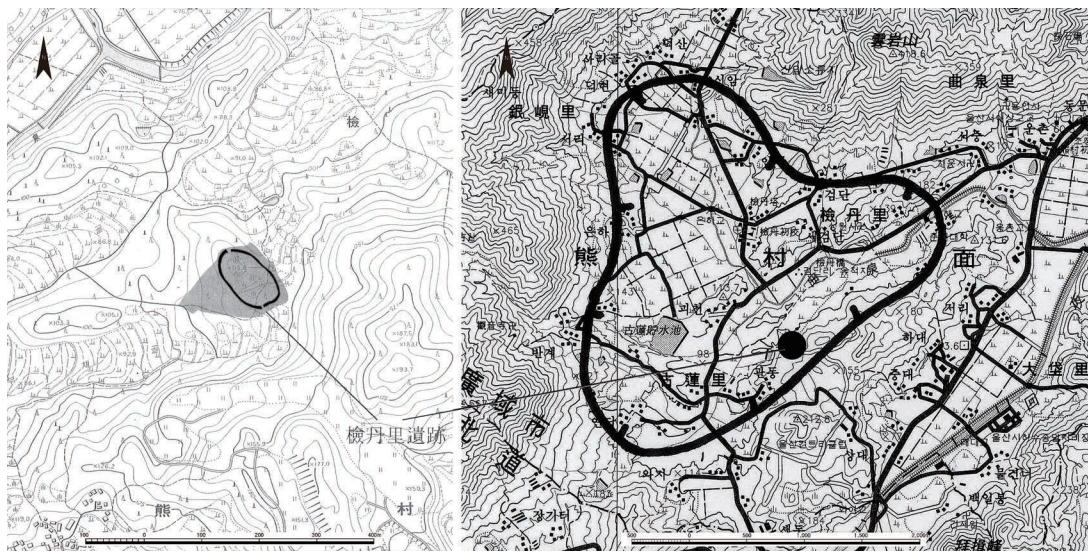


圖 8 檢丹里遺蹟 地形圖와 檢丹里據點集落 範圍

에 대해서는 舊稿의 立場을 아직 견지하고 있지만 晉州圈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는 晉州圈과 蔚山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大邱圈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平面形態가 一字形인 E 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環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排水用의 溝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검토하고자.

먼저 蔚山圈이다. 筆者는 蔚山地域의 據點集落을 檢討하면서 環濠遺蹟과 環濠가 可視圈에 들어오는 集落의 複合體를 據點集落으로 把握하였다. 그 근거로 環濠遺蹟 立地의 特徵이

- ① 平面的, 斷面的으로 突出된 丘陵에 立地하는 점 (周邊을 眺望하기 좋은 곳보다는 오히려 周邊

의 集落에서 잘 보이는 곳이라는 意味가 강함).

- ②交通이 요지에 位置하며 앞에는 河川이 흐르고 넓은 平地와 맞닿아 있는 곳.
- ③環濠로 둘러싸인 内部空間의 가장 높은 곳은 環濠面보다 海拔高度가 높다는 점 (觀念的 意味).
- ④内部에 住居가 없거나 그 수가 매우 작다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蔚山地域에서 現在까지 調査된 據點集落은 8 개소이며 據點集落間 거리는 약 6~10 km, 據點集落의 空間的 범위는 약 3 km로 把握하였다.

둘째 晋州圈이다. 環濠遺蹟의 立地에 대해서는 蔚山圈 環濠遺蹟의 特徵과 비교할 때 ①과 ③의 意味는 立地的인 差異로 해당되지 않지만 交通의 要地에 立地한다는 점에서는 同一하다고 할 수 있다. 河川이 蛇行狀으로 曲流하는 内部에 位置하는데 이 地域은 集落이 立地하기에 卓越한 地形이다. 하지만 蔚山圈의 ④항은 완전히 반대이다. 晋州 耳谷里遺蹟을 除外한 晋州 大坪里遺蹟, 草田洞遺蹟, 加虎洞遺蹟, 山淸 玉山里遺蹟 등은 周邊 地域이 모두 調査된다면 얼마나 많은 住居가 分布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의 住居가 分布한다. 蔚山圈의 青銅器時代 遺蹟의 遺構構成이 住居가 大部分인데 반해 이 곳은 무덤과 堅穴, 陷葬, 掘立柱 등 다양한 遺構가 分布하는 것도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埋沒이 쉽게 되는 沖積地라는 地形的인 特徵으로 環濠와 同時期에 몇 동의 住居가 存在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住居의 숫자 뿐만 아니라 遺蹟의 規模를 통해서 볼 때 大規模의 集落이었음은 틀림없다. 形態狀의 特徵은 加虎洞遺蹟을 除外하고는 圓形이나 橢圓形이며 궁극적으로는 出入口를 除外하고는 閉曲線을 이루어 内部空間과 外部空間이 확연히 區分된다. 또 大坪里遺蹟 1 地區에는 環濠 內側에서 木柵이 確認되었다. 晋州博物館에서 調査한 玉房 1 地區 1 次 調査에서는 確認되지 않았는데 2 年 後 연결되는 環濠의 調査에서 確認되었기 때문에 大坪里遺蹟 環濠 全體에 木柵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木柵은 環濠에서 2~3 m 안쪽에 設置되었는데 木柵間의 거리는 약 2 m, 直徑은 50~60 cm이다. 木柵이 環濠 內側에 設置된 점이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蔚山圈의 環濠는 内部에 住居가 없기 때문에 防禦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였지만 晋州圈의 木柵이 結合된 環濠는 防禦의 機能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玉房 1 地區의 경우 環濠 内部에 住居의 밀도가 확연히 높은 점도 防禦 機能으로서의 環濠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론 防禦라고 해서 반드시 地域間 葛藤을 前提로한 戰爭만을 전제로 한 가능성도 있지만 野生動物의 侵入을 防止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環濠內의 住居와 外部의 住居間 境界가 생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大坪里遺蹟 玉房 1 地區의 環濠는 크게 4 列로 이루어졌는데 모두 同時期에 使用되었다기 보다는 內側에서 점차 外側으로 擴大된 것으로 推定된다. 마을 規模가 점차 擴大되었을 것이다.

晋州圈의 環濠가 防禦나 境界의 意味가 강했다고 하지만 蔚山圈의 環濠와 마찬가지로 據點集落의 指標라는 점은 同一하다고 생각된다. 交通路라는 環濠集落의 立地, 단지 調査된 範圍 뿐만 아니라 遺蹟의 立地를 통해서 본 集落의 規模, 多樣한 遺構, 高床家屋의 存在 등으로 볼 때 周邊 集落의 中心地라고 할 수 있다. 晋州圈의 代表的인 環濠遺蹟인 大평리유적은 青銅器時代 後期の 代表的인 威勢品이라고 할 수 있는 琵琶形銅劍이 出土되지 않았지만 玉 加工作業에서 分業이 이루어졌다는 研究結果 [庄田 2009] 에서도 알 수 있듯이 玉 生産과 流通의 中心地였을 것이다. 즉 集落間의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시작 [高旻廷 2010] 되었으며 그 핵심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 ④……………三韓時代의 環濠

三韓時代의 環濠는 모두 21 遺蹟에서 調査되었다. 그 중 三韓時代 前期의 環濠가 17 곳, 後期의 環濠가 4 곳이다. 靑銅器時代 環濠가 嶺南地域에 편중되어 分布하는 것에 비해 三韓時代의 環濠는 全國의으로 고루 分布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湖南地域에는 三韓時代 前期까지는 여전히 環濠가 調査된 예가 없다. 三韓時代 環濠 역시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서 時期別로 살펴보겠다.

### 1. 前期의 環濠

三韓時代 前期에 속하는 月岐里遺蹟은 A1 형이다. 環濠 内部에 앞 時期의 松菊里型住居 6 棟이 方形住居 8 棟이 分布한다. <表 5> 는 AMS 측정결과이다. 報告書에서는 유물의 출토위치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環濠에서 出土된 三韓時代 前期의 標識的인 遺物인 粘土帶土器, 豆形土器, 黑色磨研土器는 안정된 층에서 出土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AMS 測定結果를 보아도 環濠와 住居址의 時期差異가 뚜렷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報告書에는 AMS 결과가 달라도 出土遺物이 유사해 비슷한 時期에 形成되었다고 하지만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2005] 住居가 廢棄된 以後 三韓時代 前期에 環濠가 築造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月岐里遺蹟의 環濠는 三韓時代 環濠 중에서는 가장 이른 時期일 가능성이 있고 靑銅器時代 環濠의 傳統을 가장 잘 유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金權九는 靑銅器時代와 三韓時代 前期에 산의 頂上部에 設置된 高地性 環濠 12 곳은 天神儀禮의 場所였으며 十字日光文異形靑銅器 중에서 매달거나 묶을 수 있는 고리나 구멍이 있는 靑銅器와 木製彫刻品은 高地性 環濠에서 使用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金權九 2012] 遺物에 대해서는 具體的으로 實證的인 證據가 없어 단언하기 어렵지만 環濠가 儀禮空間이라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筆者도 공감한다. 筆者는 三韓時代 前期 環濠의 가장 큰 特徵은 外形的으로도 防禦(적어도 戰爭을 염두에 둔)라고 할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形態的으로는 慶尙北道 林堂遺蹟의 環濠 이외에는 掘鑿되지 않은 陸橋로 된 出入口가 거의 없다. 金海 大成洞遺蹟의 環濠 이외

表 5 月岐里遺蹟 AMS 年代

遺構	測定年代 (BP)
KC-005 號住居	2350 ± 40
KC-007 號住居	2770 ± 40
KC-010 號住居	2530 ± 40
KC-012 號住居	2490 ± 80
環濠	2240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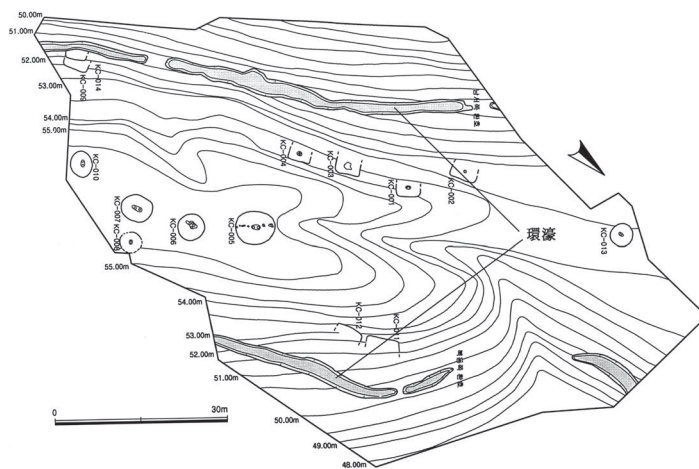


圖 9 舒川 月岐里遺蹟



에는 평지에 築造된 環濠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즉 大部分 丘陵의 頂上部 가까이 設置되는 경우가 많다.

形態의인 側面에서 三韓時代 環濠의 典型的인 例는 蔚山 校洞里 192-37 遺蹟, 安城 盤諸里遺蹟, 江陵 芳洞里遺蹟이라고 할 수 있다. 각 遺蹟의 概要는 다음과 같다.

◆蔚山 校洞里 192-37 遺蹟

東西 약 2 km, 南北 약 2 km 規模의 扁平한 丘陵의 北西쪽 끝자락 突出된 곳에 環濠가 位置한다. 地表調査와 發掘調査를 통해 丘陵 全體가 青銅器時代~三韓時代의 遺蹟으로 알려져 있다. 環濠가 分布하는 곳은 丘陵의 一部分만 調査되었지만 트렌치調査를 통해 未調査區間에 分布하는 環濠를 確認하여 全體 環濠의 平面形態와 規模를 確認하였다. 環濠는 丘陵의 頂上部를 抹角方形으로 감싸는 形態이다. 총 길이는 190 m, 內部面積은 2,780 m<sup>2</sup>로 推定된다. 溝의 幅은 最大 3 m, 깊이는 0.7 m이다. 內部에 三韓時代 竪穴이 分布하지만 主 環濠 外部에도 分布하기 때문에 이 內部의 竪穴을 保護하기 위해 環濠가 設置된 것은 아니다. 環濠의 外部에는 環濠에 비해 폭이 좁고 깊이가 얇은 구가 1~5 겹으로 둘러져 있다. 서쪽의 a 號 溝쪽은 한 겹이며 북쪽의 e 號, f 號, g 號, h 號, j 號, k 號 溝 쪽은 최대 다섯 겹이다. 다섯 겹이지만 1 열인 e 號 溝와 2 열인 f 號 溝가 세트, 4 열인 j 號 溝와 5 열인 k 號 溝가 세트를 이룬다고 判斷되기 때문에 크게 보아 세 겹이라고 할 수 있다. 環濠 外部의 外溝는 丘陵의 평

탄면까지 設置된 양상이다. 즉 서쪽은 a 號 溝 外廓으로 傾斜面이 始作되기 때문에 한 겹만 設置되었을 것이다. 동쪽의 경우 保存區域의 트렌치에서 確認된 l 號, m 號는 각각 e 號, f 號 溝와 연결될 것이다. 북쪽은 環濠 外部로 平坦面이 넓기 때문에 j 號, k 號 溝까지 設置된 것으로 判斷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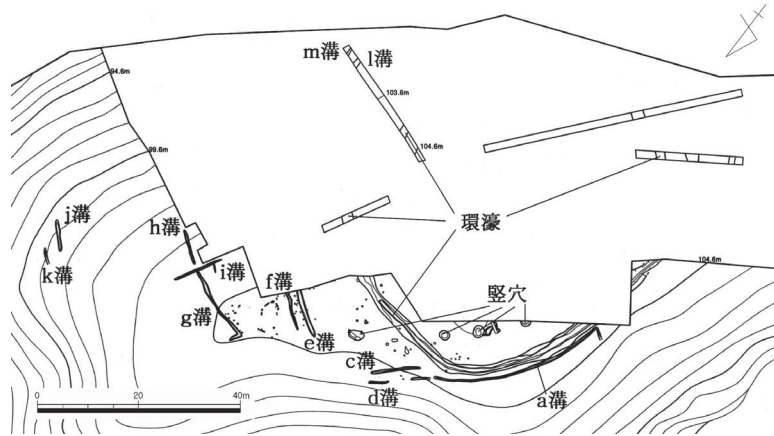


圖 10 蔚山 校洞里 192-37 遺蹟

出入口가 確認되지 않았고 현 상태로 볼 때 陸橋와 같은 出入口는 애초부터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말각방형의 형태에서 확인된 두 면이 절반 이상 조사되었는데 출입구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形態의 出入口가 한쪽에 있었다면 丘陵이 平坦하게 進行되는 남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양쪽에 出入口가 있었다면 북쪽의 g 號 溝와 h 號 溝의 이격된 部分, 즉 l 號 溝가 位置하는 곳이 出入口일 가능성이 있다. 앞 時期인 青銅器時代 後期에 해당되지만 晉州 大坪 玉房 1 地區의 環濠 중 陸橋 內側에 直交하는 溝가 設置된 예가 있는데 兩 遺蹟의 小形溝의 規模가 비슷하다.

#### ◆安城 盤諸里遺蹟

環濠는 山의 頂上部를 圓形으로 에워싸듯이 設置되었다. 環濠의 內部 中央은 山頂部에 해당되는데 自然石이 突出되어 있다. 環濠의 總 길이는 殘存 71 m이고 幅은 3 m, 깊이는 1.5 m이다. 環濠에서 1 m 떨어진 곳에 環濠와 같은 方向으로 폭 60 cm, 깊이 25 cm의 小形溝가 設置되어 있다.

그 外廓으로 약 20 m 떨어진 곳에도 小形溝가 設置되었는데 環濠의 外廓에 等高線과 나란하게 設置되어 環濠와 關聯된 遺構일 可能性이 높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이다. 盤諸里遺蹟의 小形溝는 校洞里 192-37 遺蹟의 環濠 外廓의 小形溝와 同一한 樣相이다.

內部的 自然石을 調査團은 祭壇으로 把握하고 있다. 自然石의 平面形態는 長方形이며 規模는 길이 414 cm, 最大 幅 320 cm, 높이 86 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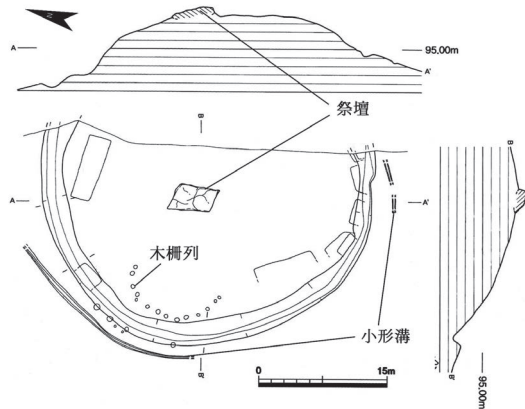


圖 11 安城 盤諸里遺蹟

#### ◆江陵 芳洞里遺蹟

等高線 方向으로 1 열의 環濠가 設置되어 있고 약 17 m 떨어진 곳에 小形溝가 設置되었다. 報告者는 外廓의 溝는 削平된 것으로 원래는 主 環濠와 同一한 規模의 二重環濠일 것이라고 하였지만

校洞里 192-37 遺蹟이나 盤諸里遺蹟과 마찬가지로 主 環濠의 外廓에 設置된 小形溝일 可能性이 높다. 韓半島 南部地方에서 規模가 同一한 二重環濠가 17 m나 떨어져 나란하게 設置된 例는 없기 때문이다.

위의 세 遺蹟을 통해서 볼 때 三韓時代 環濠의 正형은 A2 형이다. 1 열의 主 環濠가 丘陵의 頂上部를 에워싸듯이 設置되고 主 環濠 外廓에 隣接하여 環濠와 나란하게 小形溝를 중첩시키며 環濠와 멀어질수록 丘陵의 形態에 따라 等高線과 나란하게 溝를 중첩시키는 形態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세 遺蹟 이외에 儀禮의 意味가 極大화된 遺蹟의 正형으로는 陝川 盈倉里遺蹟, 富川 古康洞遺蹟이 있다. 양 遺蹟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圖 12 江陵 芳洞里遺蹟

◆ 陝川 盈倉里遺蹟

河川의 隣接한 單獨丘陵에 位置한다. 多重의 環濠가 等高線 方向으로 曲走하는 C 形이다. 溝의

幅은 넓지 않은 편이다. 반대 측에는 設置되지 않았다. 内部 에는 住居와 竪穴이 分布한다. 22 號 竪穴과 28 號 竪穴에서 細形銅劍이 出土된 점이 특이하다. 韓國에서 細形銅劍은 모두 무덤에서 出土되었는데 盈倉里 遺蹟에서 唯一하게 竪穴에서 銅劍이 出土되었다. 위신제인 細形銅劍이 出土된 것으로 볼 때 内部는 儀禮空間이었음을 알 수 있다. 盈倉里遺蹟에 대해서는 三國志魏志東夷傳의 蘇塗라고 하는 研究者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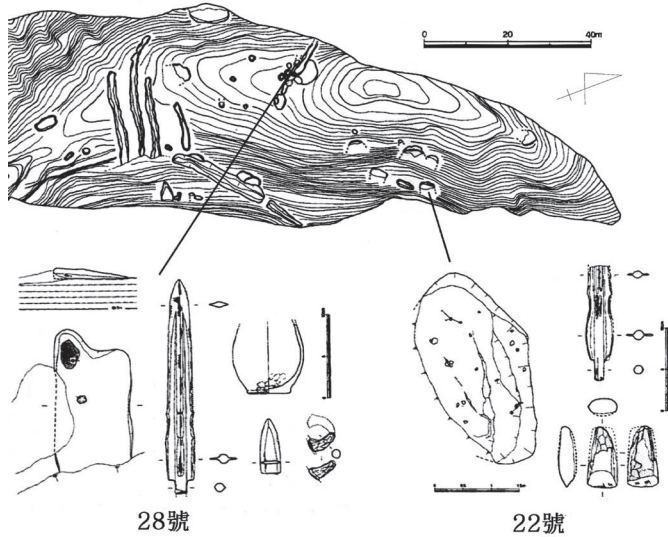


圖13 陝川 盈倉里遺蹟과 銅劍出土遺構

◆ 富川 古康洞遺蹟

環濠의 名稱이 마을을 두른 溝施設이라면 本稿에서 檢討한 48 遺蹟 중 많은 遺蹟이 環濠라는 용어를 使用할 수 없을 것이다. 筆者는 内部의 空間 혹은 遺構가 무엇이든 일정 空間을 區劃하기 위해 굴착한 溝 施設이라는 意味가 重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遺蹟도 環濠遺蹟에 포함시켰다.

山 頂上部에 人爲的으로 돌을 쌓고 그 주위에 구를 돌린 形態이다. 環濠라고 부르기에 는 規模가 작아 ‘環溝’ 라는 名稱으로 보고되었다. 中央에 平面形態 方形으로 直徑 6 m 規模로 돌을 쌓았는데 中央部가 약간 불룩한 形態이다. 보고자는 祭壇이라고 하였다. 積石에서 10 m 정도 떨어진 外廓에 平面 圓形의 溝를 掘鑿하였다. 溝의 規模는 全體 直徑 30 m, 溝의 幅은 3~4 m, 폭은 1 m 정도이다. 溝의 外廓 一部區間에는 小形 溝가 主環濠에서 突出되어 主環濠와 같은 方向으로 掘鑿되었다. 보고자는 古康洞遺蹟의 성격을 盈倉里遺蹟과 마찬가지로 蘇塗的인 성격의 圓形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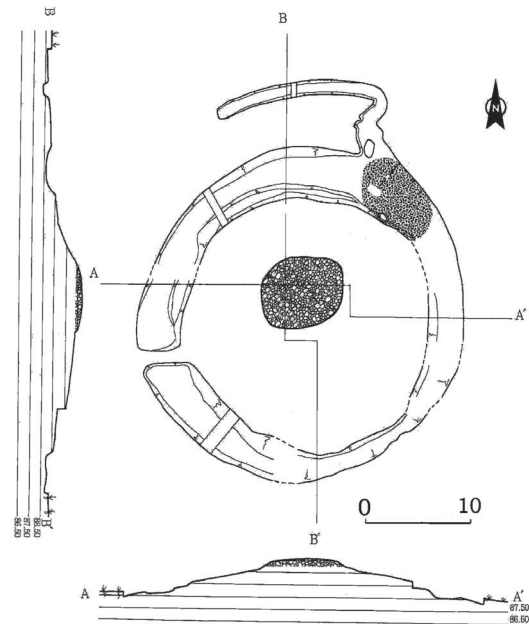


圖14 古康洞遺蹟

三韓時代 前期 儀禮의 空間을 둘러싼 環濠는 丘陵의 頂上部에 設置되었으며 古康洞遺蹟의 頂上에는 人爲的으로 돌을 쌓았으면 盤諸里遺蹟의 頂上部에는 自然石이 있다. 自然石이건 人爲的으로 돌을 쌓았건 그것이 儀禮의 場所로 이용되었는지 그것 자체가 儀禮의 對象인지는 明確하게 알 수 없지만 環濠는 儀禮空間을 外部와 區劃하기 위해 築造되었다는 점은 確實한 것 같다. 烏山 佳長洞遺蹟의 頂上部 가까이에도 수 매의 自然石이 노출되어 있는데 같은 性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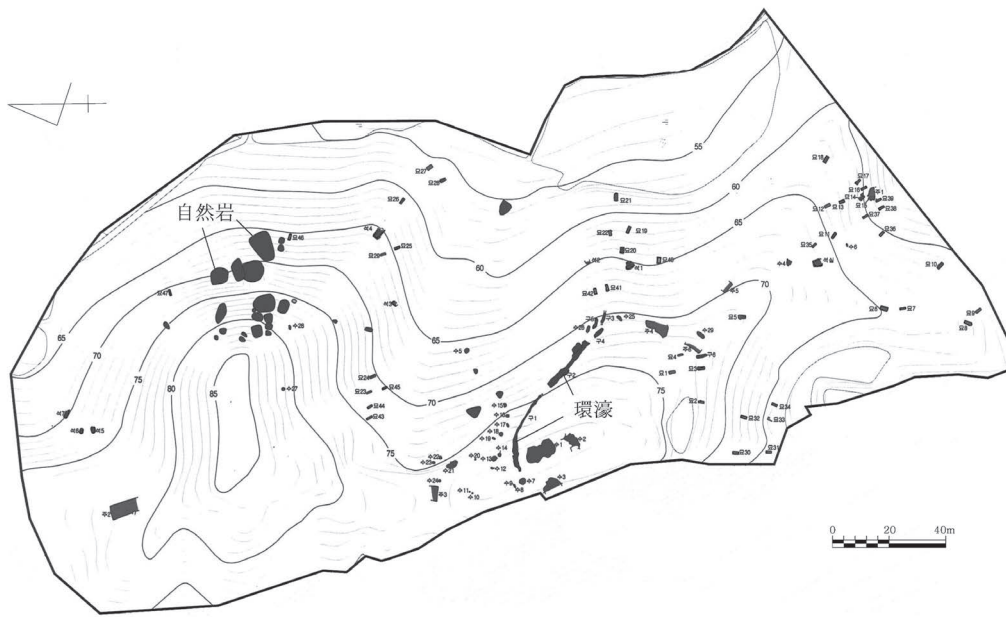


圖15 烏山 佳長洞遺蹟

이러한 環濠遺蹟의 양상은 防禦集落의 모습은 아니다. 遺蹟의 立地的인 特徵과 内部의 祭壇 등으로 볼 때 環濠 内部는 儀禮空間이며 環濠는 神聖한 場所와 外部를 區劃하는 意味로 掘鑿된 것으로 判斷된다.

## 2. 後期の 環濠

三韓時代 後期の 가장 큰 特徵은 무엇보다 環濠의 數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사례가 많지 않지만 種類는 多樣한 편이다.

全羅南道 順天 德岩里遺蹟에서 調査된 環濠는 세 겹으로 丘陵을 둘러싸고 있다. 가장 안쪽의 溝에서는 粘土帶土器가 出土되어 三韓時代 前期까지 時期가 올라갈 可能性도 있으나 다른 두 겹의 溝에서는 打捺文土器가 出土되어 中心年代는 역시 後期라고 할 수 있다. 中間中間 溝가 이격된 部分은 削平된 것이 아니라 巖盤層이라 意圖的으로 掘鑿하지 않은 것으로 把握하고 있다. 그렇지만 丘陵을 全體的으로 두르고 있고 環濠의 폭이 三韓時代 前期에 비해 넓어진 것이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慶尙南道 梁山 平山里遺蹟은 丘陵의 完만한 地域에서만 一列로 築造되었다. 出入口가 있는데 이 部分은 많은 柱穴이 確認되어 門과 같은 施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内部에 木柵이 確認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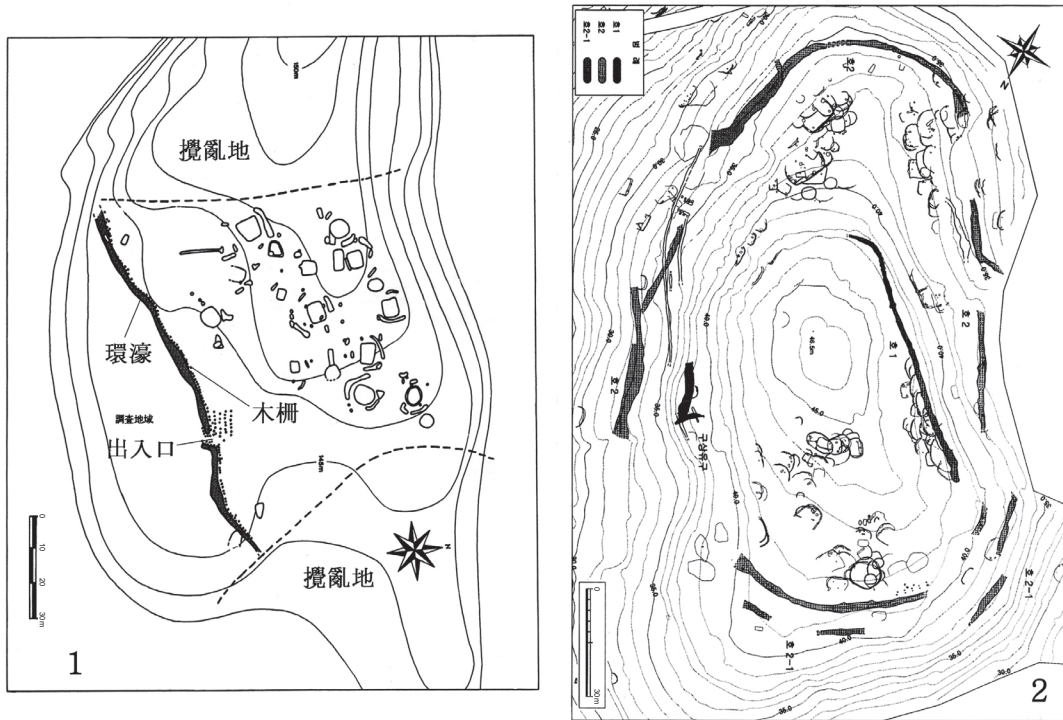


圖16 三韓時代 後期の 環濠遺蹟 (1 : 梁山 平山里遺蹟, 2 : 順天 德岩里遺蹟)

調査團은 土壘가 있었다고 推定한다.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慶尙南道 金海 鳳凰臺遺蹟은 두 차례에 걸쳐 調査되었다. 丘陵部分은 트렌치 調査였는데 트렌치에서 복열의 溝가 確認되었다. 丘陵 아래쪽의 進入路敷地 調査에서도 環濠가 確認되었다. 環濠 外部에 1 m 떨어진 곳에서 柱穴 5 개가 確認되었는데 木柵일 可能性이 있다고 한다. [釜山大學校博物館 1998] 青銅器時代 後期の 玉房遺蹟과 三韓時代 後期の 平山里遺蹟의 木柵이 環濠 内部에 設置되었다면 鳳凰臺遺蹟은 環濠 外部에 設置된 것이 特徵이다. 平山里遺蹟과 鳳凰臺遺蹟의 사례를 본다면 三韓時代 後期는 木柵과 結合되는 것이 一般的인 形態일 수도 있겠다.

環濠 + 木柵의 形態가 防禦機能이 강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三韓時代 後期の 環濠가 본격적으로 社會的 긴장에 의한 集落保護의 역할로서 環濠가 機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平山里遺蹟의 環濠 内部의 火災住居는 戰爭에 의한 火災일 수 있다.<sup>(2)</sup>

## ⑤.....環濠發生과 變化의 社會的 意味

본 절에서는 韓半島 南部地域에서 環濠의 發生과 變化가 가지는 社會的 意味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 1. 青銅器時代 環濠의 發生

環濠의 性格에 대해서는 研究者마다 意見이 나누어진다고 하더라도 環濠의 發生과 擴散이 農耕 社會의 成熟과 관련된다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環濠의 掘鑿行爲가 農耕과 直接的으로 관련

되지는 않더라도 環濠를 築造하는 社會的 動因은 農耕 社會의 成熟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農耕社會가 成熟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農耕剩餘物의 貯藏과 그에 따른 集團間 緊張狀況의 高조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 地域的으로 먼 곳의 사례이지만 中世유럽에서도 初期에는 巨石記念物이나 儀禮用 場所를 두른 예가 많기 때문에 防禦施設로 出現하였다기 보다는 象徵的意味의 區劃施設의 역할이라고 한다. [李盛周 1998]

筆者는 前期의 環濠인 大栗里遺蹟은 中國東北地方에서 직접 移住해 온 移住民에 의해 築造되었다는 安在皓의 見解를 받아들여 韓半島에서 진정한 環濠의 發生은 靑銅器時代 後期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環濠의 發生과 擴散을 靑銅器時代 前期와 後期를 區分하는 重要한 기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지 環濠라는 遺構의 發生 뿐만 아니라 環濠의 發生을 可能하게 한 社會變化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環濠築造라는 大規模 土木工事を 可能하게 한 社會的 動因의 發生일 것이다. 즉 하나의 集落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集落群에서 同一한 目的을 가지고 共同勞動을 할 수 있는 社會的 氛圍氣의 成熟이다. 結論的으로 有力個人的 登場이라고 할 수 있다. 環濠의 發生, 擴散과 同時에 일어난 靑銅器社會의 變化는 다음과 같다.

첫째 住居의 形態가 細長方形에서 圓形, (長) 方形으로 變化한다. 複數의 墟址에서 單數의 墟址로 縮小되는 것으로 이러한 變化는 住居 規模의 縮小, 規格化와 연동된다. 이것은 住居內 家族의 核家族化를 意味한다.

둘째 散發的으로 分布하는 住居가 列狀, 群集配置로 變化한다. 앞 時期에는 2~3 동의 住居가 하나의 마을을 이룬데 반해 環濠의 發生과 함께 住居가 密集한다.

셋째 散發的으로 分布하는 무덤이 列狀, 群集配置한다. 前期의 무덤이 2~3 기가 세트를 이룬다면 後期에는 密集해서 共同墓地化 한다.

넷째 土器의 文樣이 複合文에서 單獨文, 無文으로 縮小된다. 土器의 文樣 縮小가 社會的意味를 內包하지는 않지만 時期區分의 指標는 될 수 있다.

다섯째 靑銅器時代 代表的인 狩獵具인 石鏃은 無莖式에서 一段莖式으로 變化한다. 이것은 石鏃 製作方法의 變化라고 할 수 있다. 靑銅器時代 前期의 無莖式石鏃은 擦切技法으로 제작되었는데 後期에는 보다 효율적인 生産을 위해 1次 加工品인 船形石器를 제작한 후 磨研하여 完成하는 方法을 채택하였다. [黃昌漢 2004] 前期에 비해 大量生産이 可能하였다고 한다.

여섯째 水田이 擴散된다. 現在까지 韓半島 南部地域에서 靑銅器時代의 水田은 20 遺蹟에서 조사되었다. 慶尙南道 密陽 琴川里遺蹟은 早期, 蔚山 也音洞遺蹟과 無去洞 玉峴遺蹟은 前期로 보고되었지만 出土遺物을 통해서 볼 때 筆者는 後期의 水田이라고 생각한다. 筆者 역시 水田경작이 靑銅器時代 前期에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現在까지의 資料로 보는 한 모두 後期에 속하는 것이다. 앞으로 前期의 水田이 調査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中心年代는 後期일 것이다.

이상 環濠의 發生, 擴散과 연동하는 考古學的인 變化는 原始社會가 보다 복잡해지고 階層化되어 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社會變化가 環濠 築造의 動因이 되었을 것이다. 世界史的인 靑銅器時代 意味로 볼 때 이때부터 진정한 靑銅器時代의 始作이라고 할 수 있겠다.

## 2. 三韓時代 環濠의 變化와 消滅

靑銅器時代가 막을 내리고 三韓時代가 始作되는 데는 中國東北地方인 遼寧地域으로부터 粘土帶

土器를 사용한 사람들의 移住가 큰 原因이라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具體的으로는 中國의 情勢不安, 즉 燕將 秦開의 古朝鮮 侵攻으로 인한 古朝鮮계 流移民의 南下로 韓半島 南部地方에 圓形 粘土帶土器文化가 이입되고 青銅器時代가 終焉한다는 것이다. 最近 AMS 年代의 導入으로 圓形 粘土帶土器의 上限年代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粘土帶土器의 登場 背景에 대해 具體的인 歷史的 事實을 指稱하지는 않더라도 遼寧地方의 사람들이 移住해 왔다는 見解는 變함이 없다. 그에 따라 三韓時代의 도래와 함께 이전 青銅器時代의 支石墓社會가 一時에 消滅되었다고도 하지만 그 많은 青銅器時代 遺蹟을 남긴 青銅器인들이 일시에 사라지거나 三韓時代人으로 交替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中國東北地方으로부터의 文化衝擊이 크다고 하더라도 在地的인 要素가 維持되는 部分도 있을 것이다. 三韓時代 在地文化의 傳統이 이어지는 考古學的인 證據로는 圓形 粘土帶土器 關聯遺物이 出土되는 支石墓와 松菊里型住居, 遺物로는 有溝石斧가 代表的이다. [朴辰一 2000]

筆者는 外部要素가 流入되었지만 內在的인 要素와 融合되면서 發展한 것으로 생각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外部要素가 圓形 粘土帶土器, 木棺墓文化<sup>(3)</sup> 등이려면 前時代부터 이어지는 傳統的인 要素가 支石墓와 松菊里型住居 外에 環濠 築造行爲라고 생각한다. 三韓時代 前期의 環濠에서 防禦的인 機能이 窺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遺構 혹은 遺構築造行爲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儀禮空間 혹은 儀禮行爲라는 精神的인 文化가 이어진다는 점이 重要할 것이다.

三韓時代 後期에는 同時期的 日本列島에 비해 環濠遺蹟이 急減한다. 韓半島의 三韓時代 環濠가 日本 弥生時代 中期 以後처럼 環濠의 數가 增加하고 規模가 極大化 되지 않았던 것은 樂浪이나 遼東地域으로부터 中國式 土城의 影響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李盛周 1998] 三韓時代 後期の 環濠가 木柵과 結合되어 防禦的인 機能이 強化되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妥當性있는 見解이다.

하지만 다른 意味에서 環濠消滅의 意味도 구해야 한다. 李盛周의 見解대로라면 이 時期에 木柵과 결합된 環濠의 數가 增加하거나 土城의 사례가 增加하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三韓時代 後期는 三國時代로 나아가는 단계로서 各地의 國이 統合의 過程을 거치는 段階이다. 이러한 統合의 過程속에서 地域 小單位인 環濠集落이 大單位로 統合되면서 小地域의 環濠集落이 解體되었을 것이다. 環濠集落 역시 이러한 社會的인 분위기속에서 점차 消滅되어 갔을 것이다.<sup>(4)</sup>

### 3. 日本環濠와의 關係

1990 년도에 檢丹里遺蹟이 調査되기 전까지는 弥生時代 環濠의 원류는 中國으로부터 직접 전래되었다는 見解가 우세했으나 최근 韓國에서 環濠遺蹟의 調査사례가 增加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韓半島 南部地域과 연관시키고 있다. 北海道 静川유적과 같이 繩文時代晩期の 環濠도 調査되어 북방루트에 의한 전과도 상정되어 있으나 [寺澤 1999] 直接的인 조형은 韓半島 南部地域일 가능성이 높다. 日本 弥生時代 開始期 遺蹟에서 出土되는 大陸系石器를 감안한다면 日本 環濠의 원류는 南部地域 중에서도 南山遺蹟이나 網谷里遺蹟이 位置하는 馬山, 昌原地域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網谷里遺蹟에서는 弥生系 突帶文土器가 出土되어 韓半島 南部地域과 北部九州地域이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弥生時代 출현기의 環濠 역시 社會的인 緊張의 고조로 인한 防禦機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弥生時代 前期의 環濠 內部에 住居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事實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板付遺蹟의 경우 環濠內部가 削平되어 住居가 削平되었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였지만 片岡宏二는 弥生

前期의 環濠 内部에는 住居가 없었으며 板付遺蹟도 애초부터 住居가 없었을 可能性이 있다고 하였<sup>(5)</sup>다. [片岡 2003] 板付遺蹟 内部의 住居有無와 관련 없이 弥生時代 前期 環濠의 機能에 대해 戰爭의 소산으로 인한 防禦機能에서 점차 象徴적인 면 [武末 1998, 吉留 1994] 이나 용배수의 機能 [前田 1996] 으로 옮겨가는 傾向으로 볼 때 出現期 環濠 역시 防禦의 機能 보다는 儀禮적인 意味가 컸다고 생각되며 防禦의 機能이라면 짐승으로부터 貯藏穴을 保護한다는 意味가 더 컸다고 생각된다. 역시 環濠는 實質적인 機能보다 大規模 施設이 造營된다는 築造 자체에 重要的 意味가 있다고 할 수 있다. [吉留 1994]

韓半島의 靑銅器時代 ~ 三韓時代 環濠와 弥生時代 環濠는 유사한 점도 많지만 韓半島에는 貯藏穴만을 두른 環濠는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現在까지 靑銅器時代와 三韓時代에 典型的인 貯藏穴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sup>(6)</sup> 또 한국의 환호는 목책이 설치된 경우 環濠 内側に 設置되어 土壘가 있었다면 環濠 内側に 있었을 것이다. 弥生時代 中期가 되면 關東地域까지 環濠가 急増하는데 韓國은 점차 消滅의 길로 들어선다. 이러한 差異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研究課題로 삼겠다.

## 맺음말

이상 간략하게나마 韓國의 環濠遺蹟에 대하여 檢討하였다. 現在까지 調査된 環濠를 정리하였는데 意味를 두고자 한다.

②장에서 環濠를 分類할 때 어떤 속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立地, 平面形態, 規模, 斷面形態, 内部施設물의 種類, 堆積層의 양상 등 다양할 것이다. 이러한 細部的인 部分에 대한 檢討가 不足하였음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

筆者는 現在까지 晋州 大坪里遺蹟, 蔚山 校洞里 192-37 遺蹟 등 모두 여섯 곳의 環濠遺蹟 調査에 참여하였다. 調査當時 가졌던 의문점을 아직도 해결할 수 없다. 靑銅器時代건 三韓時代건 環濠의 土層中 中間層에서 確認되는 木炭이 包含된 暗褐色 腐植土層의 存在, 또 遺物は 항상 바닥에서 50~100 cm 정도 뜬 상태로 出土되는 점, 環濠의 改補修, 廢棄 後의 再使用의 問題 등등 해결되지 않은 점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細部的인 遺構상황에 대한 분석 없이 集落을 논하고 社會現象을 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2012 년도에 日本의 環濠遺蹟 자료를 모으고 관련자료를 수집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韓國環濠와 日本環濠와의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 謝辭

筆者는 2012 년 4 월 1 일부터 9 월 30 일 日本國立歴史民俗博物館에 外國人研究員으로 공부할 기회를 가졌다. 이 때 日本의 環濠遺蹟에 대한 資料를 모으고 日本의 여러 環濠遺蹟을 견학하였다. 많은 도움을 주신 藤尾慎一郎先生님을 비롯하여 여러 先生님께 감사드린다. 韓國에서 環濠에 대해 安在皓先生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紙面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본고의 일본어 번역을 맡아 수고해주신 高田貫太先生님께도 감사드린다.



註

(1)——道項里遺蹟에 대해서는 筆者가 日本에서 環濠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할 때 時期不明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報告書를 檢討해본 결과 環濠의 内部에서 三國時代의 陶質土器片이 出土되었기 때문에 三國時代 環濠로 定正하겠다.

(2)——青銅器時代의 火災住居에 대해서는 戰爭에 의한 放火보다는 住居廢棄時의 意圖의 放火, 무덤으로의 전용시의 意圖의 放火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3)——青銅器時代에도 木棺墓가 존재했었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卍州 大坪 玉房 1 地區에서 土壤의 바닥에 판재를 結構한 흔적이 확인되는 등 青銅器時代의 木棺의 조사예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青銅器時代의 木棺墓는 묘방 内部에서 판재를 조립하는 방식

으로 기존의 石棺墓와 제작법은 동일하다. 즉 石棺墓의 재질이 목재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에 반해 三韓時代 前期의 木棺墓는 屍身을 安置한 木棺을 墓壙에 넣는 형태로 青銅器時代의 木棺과는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環濠集落의 解體와 日本으로의 傳播에 관해서는 安在皓선생님의 교시가 있었다.

(5)——武末純一은 弥生前期에도 備後守屋鋪南側土壘跡처럼 環濠内部에 住居가 있는 集落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環濠内部에 住居가 있는 경우 大部分 평면형태가 圓形이며 作業孔이 있는 松菊里型住居이다.

(6)——江陵芳洞里遺蹟内部의 堅穴 중 2기는 貯藏穴로 보고되었지만 堅穴의 깊이나 斷面形態, 内部出土品을 고려한다면 貯藏穴인지 다시 檢討해야 한다.

参考文献

高 旻廷 2010 「南江流域 青銅器時代 後期 聚落構造와 性格」 『嶺南考古學』54 嶺南考古學會

金 權九 2012 「青銅器時代—初期鐵器時代 高地性環溝에 關한 考察」 『韓國上古史學報』76 韓國上古史學會

金 鐘一 2006 「景觀考古學의 理論的特徵과 適用의 可能性」 『韓國考古學報』58 韓國考古學會

朴 辰一 2000 『圓形粘土帶土器文化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裴 德煥 2000 「嶺南地方 青銅器時代 環濠聚落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徐 吉德 2006 『圓形粘土帶土器의 變遷過程 研究』 世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安 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安 在皓 2009 「南韓 青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 『東北亞 青銅器文化 調查研究의 成果와 課題』 學研文化社

李 相吉 2000 『青銅器時代 儀禮에 關한 考古學的 研究』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 秀鴻 2012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 盛周 1998 「韓國의 環濠聚落」 『環濠聚落과 農耕社會의 形成』 嶺南考古學會 九州考古學會 第3回 合同考古學大會

李 弘鍾 1996 『青銅器社會의 土器와 住居』 西京文化社

都出比呂志 1993 「環濠集落의 成立と解體」 『考古學研究』29 考古學研究會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と彌生土器」 『彌生文化の研究3』 彌生土器Ⅰ 雄山閣

吉留秀敏 1994 「環濠集落의 成立とその背景」 『古文化談叢』33 九州古文化研究會

前田豊邦 1996 「弥生時代の大溝覺書」 『紀要 創刊号 村川行弘先生古稀記念特輯』 財團法人のじく文化財保護研究財團

武末純一 1998 「日本の環濠(濠)集落—北部九州の弥生早 前期を中心に」 『環濠聚落과 農耕社會의 形成』 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 第3回 合同考古學大會

武末純一 2011 「沖ノ島祭祀の成立前史」 『「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研究報告Ⅰ 「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世界遺産推進會議

片岡宏二 2003 「環濠の新解釈」 『三沢北中尾遺跡』 小郡市教育委員會

藤原 哲 2011 「弥生社會における環濠集落の成立と展開」 『総研大文化科學研究』第7号 総合研究大學院大學文化科學研究科

庄田慎矢 2009 『青銅器時代의 生産活動과 社會』 學研文化社

山崎頼人 2010 「環濠と集團」 『古文化談叢』第65集 九州古文化研究會

---

発掘調査報告書

---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7 『芳洞里遺跡』  
慶南考古學研究所 2000 『道項里 末山里遺跡』  
慶南考古學研究所 2002 『陝川盈倉里無文時代集落』  
慶南考古學研究所 2002 『晋州 大坪 玉房 1. 9 地區 無文時代 集落』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蔚山 蓮岩洞環濠遺跡』  
慶南文化財研究院 2003 『金海 北部 消防道路 開設區間内 大成洞環濠遺蹟』  
慶南發展研究院歴史文化センタ 2007 『泗川 芳芝里遺蹟Ⅱ』  
慶南發展研究院歴史文化センタ 2009 『馬山 鎮北 網谷里遺蹟』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一釜山間 高速道路 建設區間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清道 松邑里 楡湖  
内湖里遺跡—』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8 『星州 上彦里遺蹟』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6 『挑開 新林里遺蹟』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2005 『梨寺里 月岐里遺蹟』  
國立中央博物館 1993 『梁山 多芳里貝塚 發掘調査報告』  
國立晋州博物館 2001 『晋州 大坪 玉房 1 地區 遺蹟Ⅰ, Ⅱ』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1 『昌原 上南先史遺蹟』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水原 栗田洞遺蹟』  
畿甸文化財研究院 2007 『華城 東鶴山遺蹟』  
畿甸文化財研究院 2008 『烏山 佳長洞遺蹟』  
畿湖文化財研究院 2012 『華城 雙松里遺蹟』  
東國大學校慶州キャンパス博物館 1996 『錫杖洞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梁山 平山里遺蹟』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晋州 耳谷里 先史遺蹟Ⅱ』  
東義大學校博物館 1999 『山清沙月里遺蹟』  
馬韓文化財研究院 2010 『順天 德岩里遺蹟Ⅱ』  
釜慶大學校博物館 1998 『山清沙月里環濠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蔚山檢丹里마을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1998 『金海鳳凰臺遺蹟』  
仁荷大學校博物館 2000 『仁川 文鶴洞 先史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東川洞聚落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蔚山川上里聚落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大邱 月城洞 1261 番地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大泉洞 497-2 番地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2010 『慶山 林堂洞 環濠遺蹟』  
蔚山文化財研究院 2009 『蔚山校洞里 192-37 遺蹟』  
蔚山文化財研究院 2010 『蔚山達川遺蹟 3 次 發掘調査』  
蔚山文化財研究院 2011 『蔚山 明山里遺蹟』  
中央文化財研究院 2003 『蔚山 新峴洞遺蹟』  
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清原 大栗—細橋間 道路工事區間内 清原 大栗里・馬山里・楓井里遺蹟』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安城 盤諸里遺蹟』  
忠清文化財研究院 2008 『牙山 上星里遺蹟』  
韓國文物研究院 2012 『晋州 草田 環濠聚落遺蹟』  
漢陽大學校博物館 2005 『富川 古康洞 先史遺蹟 第4次 發掘調査 報告書』

(蔚山文化財研究院)

(2014年4月24日受付, 2014年11月7日審査終了)

# 韓半島南部地域青銅器～三韓時代 における環濠遺跡の変化と性格

Attributes of Surrounding Moat Remain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and Their Changes during the Bronze Age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Korea

李秀鴻

朴宣映 [訳]

LEE Soo-hong Translated: PARK Sun-young

はじめに

①遺跡の検討

②環濠の分類

③青銅器時代の環濠

④三韓時代の環濠

⑤環濠の成立・変化の社会的な意味

おわりに

## [論文要旨]

本稿では、これまで調査された韓半島南部地域の青銅器～三韓時代の環濠遺跡48ヶ所を集成し、環濠の時期ごとの特徴や性格、変化の傾向を検討した。

韓半島南部地域において環濠は、青銅器時代前期には登場しており、清原大栗里遺跡で確認できる。幅の狭い3列の溝が等高線方向に曲走する。出土遺物からみて遼寧地域から直接移住した集団が築造したものと判断できる。

青銅器時代において環濠の成立および拡散が明瞭に確認できる時期は、青銅器時代後期である。この時期には、大部分の環濠が嶺南地域に集中的に分布し、その中で地域的な差異も看取できる。まず、蔚山圏ではすべて丘陵上に分布し、1列の環濠がムラの周りを取り囲む形態が多い。地形や立地の特徴から、儀礼空間を区画する性格があったと判断できる。本稿では、環濠自体と環濠が眺望できる集落からなる結合体を、拠点集落と把握した。一方で、晋州圏では主に沖積地の大規模な集落に環濠が備わっている。木柵をとまなう場合もあり、防御もしくは境界という機能がより強かったようである。ただし、防御といっても必ずしも戦争の際の防御だけではなく、野生動物の脅威にも対応した施設であった可能性もある。環濠が大規模な集落に設置されているため、拠点集落の指標となることは蔚山圏と同様である。環濠の成立は、青銅器時代の前期と後期の画期と評価でき、大規模な土木工事である環濠の築造を可能にした有力な個人の登場を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

三韓時代の前期には、韓半島の広い範囲に環濠遺跡が分布する。この時期には儀礼遺構としての意味が極大化する。1列の主環濠の外部に同一方向の幅狭の溝が並行するものが一般的な形態である。山頂部に円形に設置する例が多い。三韓時代の後期には環濠遺跡の数が急減する。これらは木柵をとまなったり、環濠の幅が広くなったりしており、社会的緊張による防衛的性格が強くなるように見受けられる。三韓時代後期に環濠が急減するのは、中国や高句麗から土城が伝来し、各地の国々が統合する過程において、地域の小単位としてあった環濠集落もより大きな単位への統合されていくため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 青銅器～三韓時代、環濠、分類と編年、機能論

## はじめに

1990年に韓国で初めて集落を囲む環濠が慶尚南道蔚山検丹里遺跡において調査された。これが、韓国における環濠遺跡の調査、研究の始まりとなった。1995年に検丹里遺跡の報告書が刊行され、1996年から開始された慶尚南道晋州南江ダム水没地区の大坪里遺跡の調査の後、環濠遺跡の調査は急増することになる。そして1998年度には九州考古学会・嶺南考古学会合同学術大会が「環濠遺跡と農耕社会の形成」を主題として開催されるほどに、環濠に関する関心は高まることとなった。

しかし、意外にも近年の環濠についての研究は盛んとはいいがたい。李盛周や裴徳煥の研究の他には環濠を主題とした研究は特に見当たらず、多くの場合、他の内容に含めて環濠について論者の見解が簡略に提示される程度である。このような研究の不振の理由としては、おおむね次のことが考えられる。第1に環濠の機能について、それが防御用なのか儀礼用なのかという単純な構図で接近しようという研究状況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機能については地形（立地）、規模、内部施設など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第2に多くの遺跡では環濠の一部分のみが調査されるため、その全貌を明らかにしがつたいという点である。環濠の一部分のみが調査された場合、それが弧を描いて閉曲線として一周するものなのか、それとも「一」直線状にのびて収斂してしまうものなのか、というような判断があいまいになってしまうことが多々ある。第3に、出土遺物の少なから環濠内外の遺構と同時期であったのかを明確にしがつたい場合が多い点も挙げることができる。

それでも、韓半島中・南部地域における環濠遺跡の調査事例は50ヶ所ほどに達し、青銅器時代以後の環濠についての調査事例も蓄積されたことで、環濠が存続した時間的な幅も広くなりつつある。よって、これまで調査された環濠遺跡を通時的に検討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そこで本稿では、韓半島において調査された青銅器～三韓時代の環濠遺跡を集成し、環濠の時期ごとの特徴や性格、変化の傾向性について検討しようと思う。

本論に入る前に、本稿における時期区分案を説明しておく。青銅器時代については、早期～前期

表1 韓半島南部地域における青銅器～三韓時代の時期区分案

李圭圭など (1974年)	青銅器時代前期			青銅器時代後期		原三国時代	
藤口健二など (1986年)	無文土器時代前期		中期	無文土器時代後期			
李弘鍾 (1996年)	無文土器時代前期		無文土器時代後期				
	青銅器時代			三韓時代			
安在皓の区分案 (2001年)	早期	前期	後期	前期		後期	
				前半	後半	前半	後半
土器	突帯紋土器	可樂洞式 欣岩里式	松菊里式 検丹里式	円形 粘土帯	三角形 粘土帯	古式瓦質	新式瓦質
国立中央博物館 (2007年まで)	青銅器時代			初期鉄器時代		原三国時代	
日本	縄文時代		弥生時代				

一後期に区分する安在皓の区分案に従う。青銅器時代以後、粘土帯土器と瓦質土器が出土するそれぞれの段階について、現状では青銅器時代後期と原三国時代、初期鉄器時代と原三国時代、そして三韓時代前期と三韓時代後期というように3つの時代（時期）名称が用いられている。本稿では、三韓時代という時代名称を用いることとする。すなわち、本稿で取り扱う時代は青銅器～三韓時代となる。参考として、韓半島における時代（時期）区分案についての諸見解を表1に挙げておく。

## ①……………遺跡の検討

上述の通り、青銅器時代から三韓時代までの環濠を検討する。三国時代にも、梁山多芳里貝塚の下層で確認された環濠とされる溝や、咸安道項里遺跡、桃開新林里遺跡でも環濠が確認されている。しかし、すでに境界や防御の機能を有する施設としては山城が築造され、儀礼の意味合いもまた先史時代とは大きく異なっていると考えられる。青銅器時代から三韓時代までの環濠は、現在48ヶ所調査されている。その中でこれまで環濠遺跡とされてきた晋州上村里遺跡、大邱八達洞遺跡、蔚山芳基里遺跡、蔚山無去洞玉峴遺跡は、本稿の検討からは除外している。その理由は次の通りである。

まず、晋州上村里遺跡は、新石器時代の環濠ではなく、単に青銅器時代の溝である可能性が高い。報告書が刊行されておらず全貌は知り得ないが、平面形や規模からみると、先史時代の環濠とは判断しがたい。現在までに、新石器時代遺跡において、上村里遺跡のような形状の溝が確認された例は存在せず、周囲の遺構との関連をみても新石器時代の意向とは判断しがたい。上村里遺跡の調査の後、韓半島南部地域における環濠の上限年代を新石器時代後期までさかのぼらせる見解も見受けられたが、このような認識は再考される必要がある。蔚山芳基里遺跡は、環濠とされた溝の堆積土層の中で溝底面に近い7層から朝鮮時代の白磁が出土したため、朝鮮時代の溝と判断するのが妥当である。溝断面の形態や幅と深さの比率などをみても、一般的な先史時代の環濠とは異質的である。

大邱八達洞遺跡で調査された溝は、一部の研究者によって環濠と報告された。正式な報告書は未完であるが、略式報告書には青銅器時代の環濠という言葉はない。平面形態は確かに円形にめぐってはいるが、等高線に直交する部分が多く、その規模なども考慮すれば、先史時代の遺構ではなく、近代の施設である可能性が高い。蔚山無去洞玉峴遺跡の溝は、時期は明らかに青銅器時代ではあるが、谷部において等高線と直交し直線状に掘られているため、より下方の水田に用水を供給する水路と判断した。その他にも、環濠ではない可能性がある遺跡も存在するが、それについては発掘調査報告書の記述を最大限尊重し、検討対象に含めた。

韓半島南部地域で調査された48ヶ所の環濠遺跡の内訳は、青銅器時代の環濠遺跡が27ヶ所、三韓時代の環濠遺跡が21ヶ所となる。青銅器時代の環濠は、その多くが嶺南地域に集中している。過去には湖南地域や江原地域などにおいて、ある特定の遺構が分布しない場合、それは開発による発掘調査事例が少ないためと考えることもあったが、発掘件数が増加した現在の分布状況をかながみる時、それに対して何らかの意味づけを行う必要があるようである。かつて安在皓は、全南地域に環濠が分布しない一方で支石墓が濃密に分布する状況に関して、全南地域が嶺南地域に比べて農耕社会への転換が遅かった結果と考えた[安在皓2006]。すなわち、支石墓の築造は労働力の多くを投入せざるを得ないために農耕生活が難しく、環濠が多く確認される嶺南地域では支石墓から石

棺墓へという墓制の転換がなされ、農耕が活発化したという解釈である。しかし、全南地域は嶺南地域と比べてより農耕に適した環境であり、近年では嶺南地域においても大規模な支石墓群が調査されており、再考の余地がある。

このような青銅器時代の状況と比べると、三韓時代には京畿地域と嶺南地域に分散的に分布している。江原道地域や忠清地域でも確認されているので、全国に広く分布するといえる。ただし、三韓時代前期の環濠遺跡は、前期前半と前期後半の分布圏に若干の差異が認められる。すなわち、前期前半には主に中西部地域に分布し、前期後半になると、三角形粘土帯土器の分布圏たる東南海岸地域でのみ確認される。一見、円形粘土帯土器—中西部地域、三角形粘土帯土器—東南地域という土器の分布圏と一致をみせているが、円形粘土帯土器と三角形粘土帯土器の編年について再考する必要がある。すなわち、円形粘土帯土器が全国的に分布するのに対し、三角形粘土帯土器は東南海岸地域にのみ分布しており、円形粘土帯土器と三角形粘土帯土器の時期関係は、共存する時期幅が広い継起的な前後関係と判断すべき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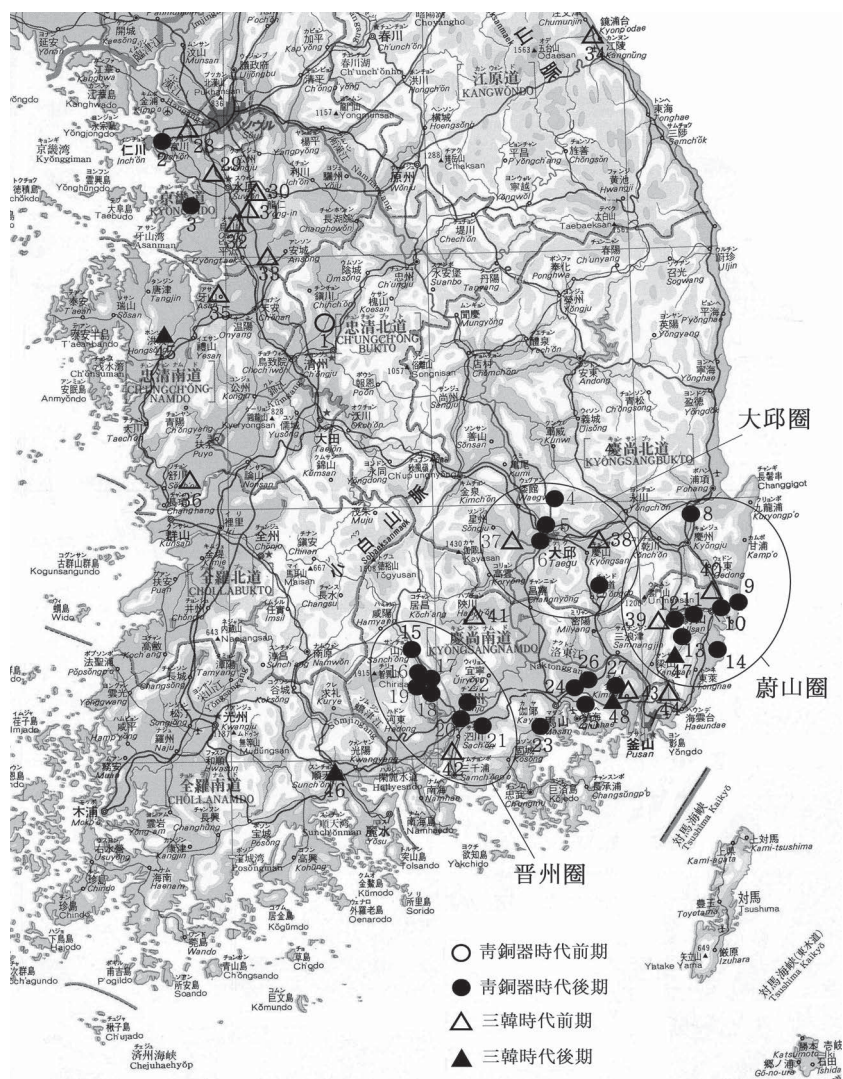


図1 韓半島南部地域における青銅器～三韓時代の環濠遺跡の分布

表2 韓半島における青銅器～三韓時代の環濠一覧(番号は図1と一致)

番号	時代	遺跡	立地	列	平面形態	内部施設	調査機関	分類	備考
1	青銅器時代前期	清原大栗里	山頂	3列	不定形	住居址	中央文化財研究院	C	
2	青銅器時代後期	仁川文鶴洞	丘陵	1列	一字形		仁荷大学校博物館	E	
3		華城雙松里	山頂	1列	円形	無	畿湖文化財研究院	A1	
4		大邱東川洞	平地	1列	不定形	住居址	嶺南文化財研究院	E	水路?
5		大邱月城洞	平地	2列	不定形		嶺南文化財研究院	?	
6		大邱大泉洞	平地	1列	弧形		嶺南文化財研究院	D	
7		清道松邑里	平地	2列	弧形		慶尚北道文化財研究院	E	
8		慶州錫杖洞	丘陵	1列	?	?	東国大学校博物館	?	
9		蔚山新峴洞	丘陵	1列	現一字形	?	中央文化財研究院	?	
10		蔚山蓮岩洞	丘陵	2列	円形	無	慶南文化財研究院	B2	
11		蔚山川上里	丘陵	1列	橢円形	住居址	嶺南文化財研究院	A1	
12		蔚山新華里	丘陵	1列	弧形		蔚山文化財研究院	D	
13		蔚山檢丹里	丘陵	1列	橢円形	住居址, 溝	釜山大学校博物館	A1	
14		蔚山明山里	丘陵	1列	抹角三角形	住居址?	蔚山文化財研究院	A1	
15		青銅器時代後期	山清玉山里	平地	1列	橢円形	住居址	釜山大学校博物館 慶尚大学校博物館	A1
16	山清沙月里		丘陵	2列	半円形	住居址, 竪穴	釜慶大学校博物館	B1	
17	山清沙月里		丘陵	1列	弧形?	住居址, 竪穴	東義大学校博物館	D	
18	大坪玉房 1, 7地区		平地	1列, 2列	(楕)円形	住居址	慶南考古学研究所 慶南文化財研究院 晋州博物館	B1	木柵と結合
19	大坪玉房 4地区		平地	2列	現L字形	住居址	東義大学校博物館	B1	報告書未刊
20	晋州加虎洞		平地	1列	弧形?	住居址	東西文物研究院	?	
21	晋州耳谷里		平地	1列	抹角方形	住居址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A1	
22	晋州草田洞		平地	1列	一字形	住居址	韓国文物研究院	?	
23	馬山網谷里		平地	1列	橢円形?	住居址, 墓	慶南發展研究院	A1	
24	昌原南山		山頂	多重	橢円形	住居址	昌原大学校博物館	A1	報告書未刊
25	昌原上南		平地	2列	弧形		昌原文化財研究所	B1	
26	昌原徳川里		丘陵	1列	弧形?		慶南大学校博物館	E	報告書未刊
27	金海大成洞		平地	2列	?	?	慶南文化財研究院	B1?	
28	三韓時代前期	富川古康洞	山頂	1列	円形	集石	漢陽大学校博物館	A2	
29		水原栗田洞	丘陵	1列	不定形	竪穴4基	畿田文化財研究院	D	
30		華城東鶴山	丘陵	3列	円形	竪穴, 爐跡	畿田文化財研究院	C	
31		烏山佳長洞	丘陵	1列	不定形	竪穴	畿田文化財研究院	D	
32		烏山樓邑里	丘陵	1列	橢円形?		ギョレ文化財研究院	D	報告書未刊
33		安城盤諸里	山頂	2列	円形	自然石	畿田文化財研究院	A2	
34		江陵芳洞里	丘陵	2列	弧形	住居址	江原文化財研究院	A2	
35		牙山上星里	丘陵	1列	円形?	?	忠清文化財研究院	A2	
36		舒川月岐里	丘陵	1列	橢円形?	住居址?	韓国考古環境研究所	A1	
37		星州上彦里	丘陵	1列	不定形	柱穴	慶北文化財研究院	E	
38		慶山林堂	平地	2列	弧形	?	嶺南文化財研究院	B1	
39		蔚山校洞里	丘陵	2列	円形	?	蔚山文化財研究院	A2	
40		蔚山達川	丘陵	1列	不定形	採鑛場	蔚山文化財研究院	D	
41		陝川盈倉里	山頂	3列	弧形	住居址, 竪穴	慶南考古学研究所	C	
42		泗川莠芝里	丘陵	2列	橢円形?	住居址, 竪穴	慶南發展研究院	C	
43		金海大成洞	平地	1列	一字形?		慶星大学校博物館	D	報告書未刊
44		釜山温泉洞	丘陵	2列	円形	住居, 木棺	釜山博物館	B2	報告書未刊
45	三韓時代後期	洪城石宅里	丘陵	3列	橢円形	住居址	ハヌル文化財研究院	C	
46		順天徳岩里	山頂	多重	橢円形	住居址	南道文化財研究院	C	
47		梁山平山里	丘陵	1列	橢円形	住居址	東亞大学校博物館	D	木柵と結合
48		金海鳳凰臺	丘陵	?	橢円形?		釜山大学校博物館	C	試掘調査

## ②……………環濠の分類

48ヶ所の環濠遺跡を平面形態、環濠の数を基準に分類する。

A型は1列で、入口部を除けば閉曲線として完結する環濠である。A1型は丘陵あるいは集落を包み込むように一周する形で設置され、最も基本的な環濠である。丘陵屋集落の携帯によって、環濠の平面計は決定されるが、その多くは楕円形に近い。A2型は陸橋部がなく、完全に閉曲線を呈する物である。その多くは、円形もしくは隅丸方形に近い。三韓時代の場合、環濠の外側にそれと同方向に小溝が並行するものも含む。

B型はA型と類似するが、2列の溝で構成されるものである。B1型は閉曲線であるのか明確ではないが、一定の空間を取り囲む形態と考え、環濠に含めた。B2型は2列で構成される環濠の中で、平面形態が円形に近いものである。

C型は3列以上が並行するものである。出入口を除けば閉曲線の形態となるものや、丘陵の一部分のみに溝を巡らせるものがある。

D型は1列の環濠で、丘陵に設置される場合には韓国で「包谷形」と呼ばれるものである。閉曲線ではなく、等高線と平行に曲走する形態である。

E型はその多くが1列で構成されるが、丘陵の地形とは関係なく不定形に設置される。東川洞遺跡の場合は複数の列で構成されるが、定型的ではないため、この類型に含めた。

以上の分類を模式図であらわしたのが、表3である。環濠の一部のみが発掘調査され、全貌を把握しがたい遺跡は除外した。次に類型別に検討する。

A1型は最も一般的な環濠の形態である。その多くは青銅器時代に属する。ただ、舒川月岐里遺跡の環濠については、報告書において内部に存在する青銅器時代の住居址と類似する時期とされているが、環濠内部から粘土帯土器が出土し、炭素14年代の結果も住居址よりも遅い時期であるため、三韓時代前期と判断した。しかし、基本的にA1型は青銅器時代が中心である。一方で、A2型、すなわち陸橋のような出入口を有さず、完全な閉曲線を呈する形態は、三韓時代に出現すると考えられる。1列の環濠において、陸橋の有無は時期区分の基準となる可能性が高く、A2型は三韓時代前期の典型的な形態と評価できる。

B1型は同一幅の2列の環濠がめぐるものであるが、三韓時代の事例としては慶山林堂遺跡のものが唯一である。林堂遺跡は青銅器時代における環濠の伝統を忠実に継承したものと判断できる。B2型はその内部に住居址が皆無であることが特徴的である。

C型の場合、後述する清原大栗里遺跡のように青銅器時代前期に移住民集団によって造営されたものを除けば、三韓時代を中心年代とすることができる。三韓時代のC型は、3列以上の環濠がめぐる複列ではあるが、溝の幅が狭く、その機能は多分に観念的なものとなっている。ただし、三韓時代後期になると、溝の幅は広くなる。

D型は青銅器時代の事例として山清沙月里（東義大）遺跡があるが、その中心年代は三韓時代前期である。C型と同様に溝の幅は狭い。梁山平山里遺跡は木柵と組み合わせるが、環濠は浅く、その機能は形骸化しつつあり、木柵が実用的な機能を果たしていたものと判断さ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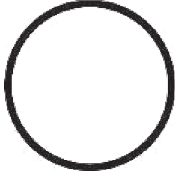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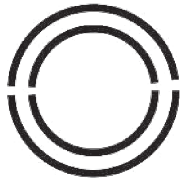



E型は水路に近く、A～D型とは異なる性格であるため、厳密な定義としての「環濠」ではな



い可能性が高い。

このような分類に基づいて，③，④章において時期別に検討する。

表3 環濠の分類

分類	模式図	遺跡			
		青銅器時代		三韓時代	
		前期	後期	前期	後期
A1			川上里, 檢丹里, 明山里, 玉山里, 南山, 耳谷里, 網谷里, 雙松里	月岐里	
A2				古康洞, 盤諸里, 芳洞里, 上星里, 校洞里	
B1			沙月里 (釜慶大), 大坪里, 上南	林堂	
B2			蓮岩洞	溫泉洞	
C		大栗里		東鶴山, 盈倉里, 芳芝里	石宅里, 徳岩里, 鳳凰臺
D			大泉洞, 新華里, 沙月里 (東義大)	栗田洞, 樓邑里, 佳長洞, 大成洞, 達川	平山里
E			文鶴洞, 松邑里, 徳川里, 東川洞	上彦里	

### ③……………青銅器時代の環濠

青銅器時代の環濠は27遺跡で確認できるが、その中で清原大栗里遺跡が前期に属するほかはいずれも後期に属する。報告書によれば、大栗里遺跡以外にも前期と報告された環濠はあるが、筆者は後期と判断している。本章では、編年についての検討とともに、青銅器時代の環濠の実態について考察する。

#### 1. 編年の再考と前期の環濠

考古学において遺構の性格やその起源を明らかにするためには、編年が重要である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特に、誤って実際よりも早い時期と把握してしまうと、起源の問題のみならずその展開過程の検討にまで混乱をきたしてしまう。まずは、青銅器時代前期と報告された華城雙松里遺跡の環濠の再検討から始めたい。

華城雙松里遺跡（図2）では、丘陵頂上部にA2型に属する円形の環濠が築かれた。環濠の下方には住居址36基が分布する。住居址の平面形態は、細長方形が3基、その他はすべて長方形や方形である。報告者は住居址と環濠をいずれも同時期と判断し、遺跡全体を青銅器時代前期に編年した。しかし、筆者は36基の住居址は築造時期に差があり、厳密に前期に属するものは、平面が細長方形の6、26、33号住居址の3基のみと考える。そして、その他の住居址はすべて後期に属する可能性が高い。環濠内部から、前期の標識的な土器である孔列文と口唇部の刻目が施文された駅三洞式土器片と、台付小壺の台脚が出土したことは確かである。しかし、最近の傾向としては、駅三洞式土器は青銅器時代後期の遺跡からも出土するので、これらの土器から環濠の時期を前期と判断することは難しい。また、環濠から出土した石鏃も、鏃身部断面が菱形を呈しており、後期に一般的な一段茎式の可能性がある。

表4は雙松里遺跡の炭素14年代の測定結果である。これを見ると、環濠の測定結果が他の住居址よりも遅く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よって、環濠は住居址と同時期ではなく、むしろより後の時期の築かれたものと判断すべきであろう。筆者は、環濠の平面形態が円形として定型化している点、両側に出入口が備わっている点から、青銅器時代後期でも遅い時期のものとして判断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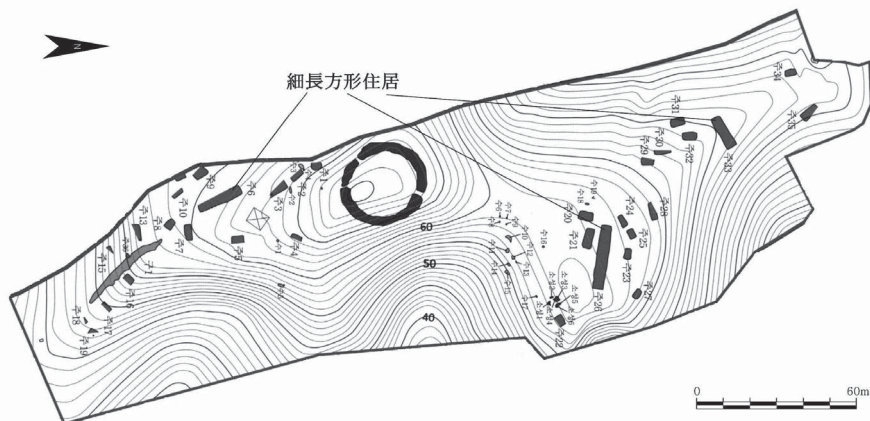


図2 雙松里遺跡の遺構配置図

晋州耳谷里遺跡では、住居址や墓とともに、隅丸方形の環濠（A1型）、環濠に連結する直線状の溝などが調査された。発掘調査の現地説明会の資料では、環濠に連結する直線状の溝を前期の環濠、隅丸方形の環濠を後期の環濠と把握していたが、報告書では直線状の溝については環濠とはせずに、「大型溝」と呼称している。耳谷里遺跡では、平面円形の松菊里型住居址は確認されなかったため、隅丸方形の環濠は休岩里式住居の段階（後期前半）とみることができよう。耳谷里遺跡において青銅器時代前期後半の墓が調査されたことは確かであるが、この環濠がその時期から長期間存続していたとは考えにくく、環濠を含めた遺跡の中心年代は青銅器時代後期と把握すべきである。

以上の検討が妥当とすれば、現在確認されている韓半島南部地域の環濠遺跡の中で、青銅器時代前期に属するものは、清原大栗里遺跡（図3）の1ヶ所のみである。

表4 雙松里遺跡の炭素14代

遺構	測定年代 (BP)	遺構	測定年代 (BP)
1号住居	2860 ± 50	25号住居	2640 ± 50
3号住居	2660 ± 50		2750 ± 50
6号住居	2890 ± 50	26号住居	2710 ± 50
	2770 ± 50		2740 ± 50
9号住居	2780 ± 50	28号住居	2760 ± 50
13号住居	2740 ± 50	29号住居	2630 ± 50
14号住居	2640 ± 50	33号住居	2780 ± 50
15号住居	2900 ± 50		2840 ± 50
20号住居	2720 ± 50	34号住居	2920 ± 60
21号住居	2850 ± 50	35号住居	2700 ± 50
23号住居	2760 ± 50	環濠	2620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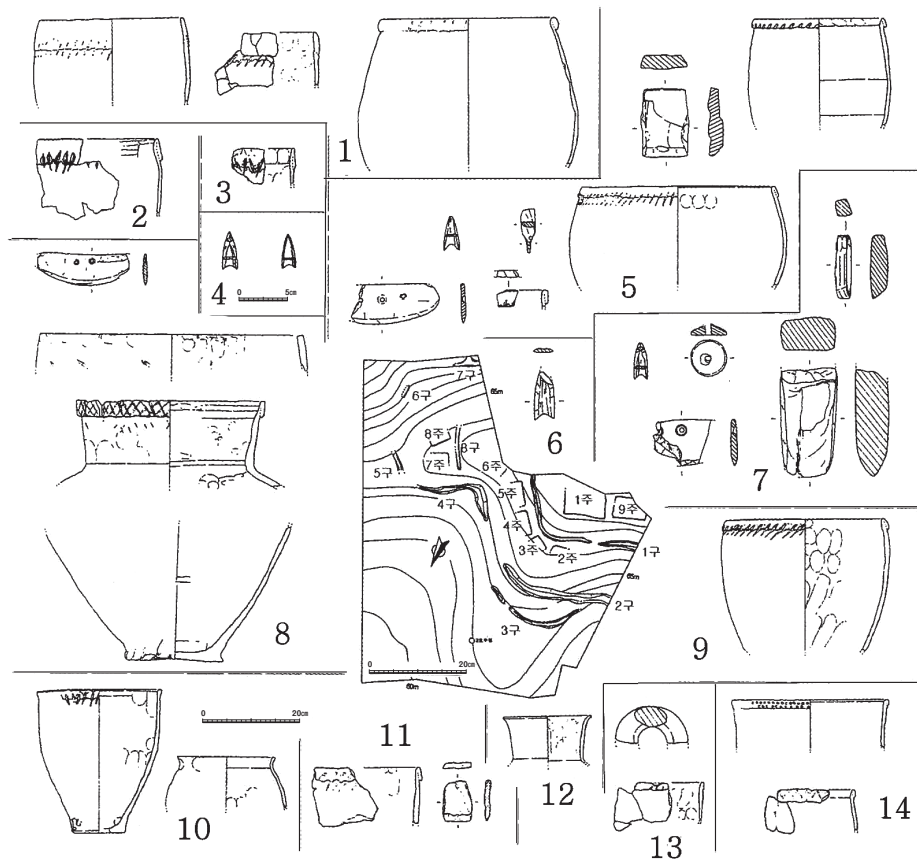


図3 大栗里遺跡の出土遺物（安在皓 2009 より転載）

1: 5号住, 2: 7号溝, 3: 6号溝, 4: 8号住, 5: 1号住, 6: 6号住, 7: 9号住,  
8: 7号住, 9: 1号溝, 10: 4号溝, 11: 4号住, 12: 3号住, 13: 2号溝, 14: 2号住

大栗里遺跡の環濠は丘陵頂上部に位置し、3列の環濠を等高線に沿ってめぐらせたC型である。環濠の内外には9基の住居址が分布する。環濠と住居址からは二重口縁で短斜線を施文した深鉢形土器や、二重口縁で鋸齒文と二重の列点文を施文した土器などが出土した。二重口縁+短斜線の土器は、いわゆる可楽洞式土器とは異質である。また、鍬身部断面形が凹状を呈する短身鍬は中国東北地域の石鍬の特徴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から、大栗里遺跡を営んだ人々は在地集団ではなく、中国東北地域から移住してきた移住民集団という見解がある〔安在皓 2009〕。土器の文様や石器組成からみると妥当な見解であろう。大栗里遺跡以外には前期末頃の環濠遺跡が確認されていない点やC型環濠は青銅器時代後期にも確認されていない点なども、この見解の傍証となろう。そうであるならば、在地集団による本格的な環濠の造営は現在の資料による限り、青銅器時代後期以後と把握でき、環濠造営と拡散は青銅器時代後期の指標の1つとして評価できる。

## 2. 後期における環濠の特徴—地域性と機能—

青銅器時代後期の環濠は26遺跡において調査された。京畿地域の2ヶ所を除外すれば、すべて嶺南地域における調査事例である。京畿道仁川文鶴洞遺跡は丘陵の一部のみが調査され、全貌を把握しづらいが、調査された環濠は谷部にそって等高線と直交するように掘削された「一」字形のもので、E型に属する。蔚山無去洞玉峴遺跡の溝と類似し、集落を取り囲む典型的な環濠とは差異がある。しかし、京畿道華城雙松里遺跡において環濠が調査されたため、中部地域においても今後の資料の増加が期待できる。ただし、現状においては分布の中心は嶺南地域にあるといってもよい。本節では、青銅器時代後期の環濠遺跡から読み取れる地域性と環濠の機能について検討する。

### 1) 地域性

韓半島南部地域において、青銅器時代後期は松菊里文化の成立と拡散が最大の特徴であり、編年の基準となっている。しかし、松菊里文化は韓半島全体に拡散するわけではなく、京畿地域南部と東南海岸地域を弧状に結ぶ線を境として、その南西側にのみ広まる。韓半島全域を俯瞰すれば、むしろ松菊里文化が異質的とすらいえる。松菊里文化が分布しない地域について、筆者は検丹里文化分布圏と定義したことがある〔李秀鴻 2012〕。検丹里文化分布圏における文化の下位概念としては、大きく4つの類型が存在する。

松菊里文化分布圏においても多様な類型が存在するが、相対的に検丹里文化分布圏は松菊里文化分布圏よりも前期の文化が強く受け継がれる特徴を有している。嶺南地域は図4のように、松菊里文化分布圏と検丹里文化分布圏に区分され、住居址、墓、土器などの様相に明らかな差異を看取できる。環濠は両分布圏において確認できるが、諸々の特徴か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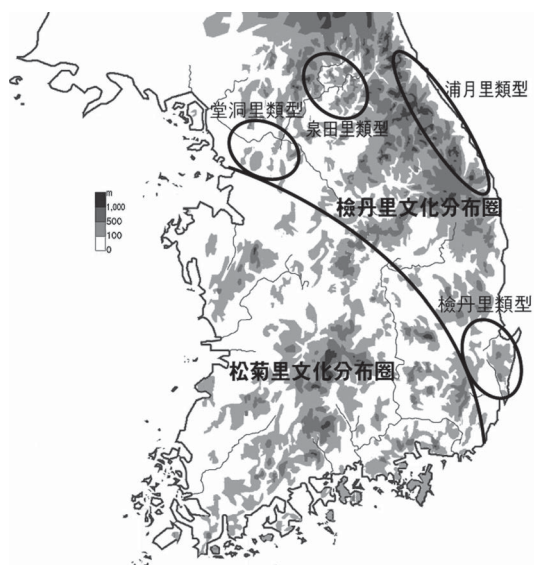


図4 青銅器時代後期の地域相

地域性を指摘できる。

洛東江の支流たる南江流域と南江の支流たる鏡湖江流域をあわせた晋州圏，同じく洛東江の支流たる琴湖江流域の大邱圏，そして東南海岸圏の蔚山圏に大きく区分することができる。晋州圏と蔚山圏の境に位置する金海や昌原地域においても，5ヶ所の環濠が発掘調査されているが，そのうち昌原南山遺跡は報告書が未刊であり，他の4ヶ所についても，一部区間のみが調査されたにすぎず全貌を把握しがたい。よって，これらについては次の機会に論じることとしたい。

まず，晋州圏では大規模な集落が河川沿いの沖積地に分布しており，環濠を備えている（図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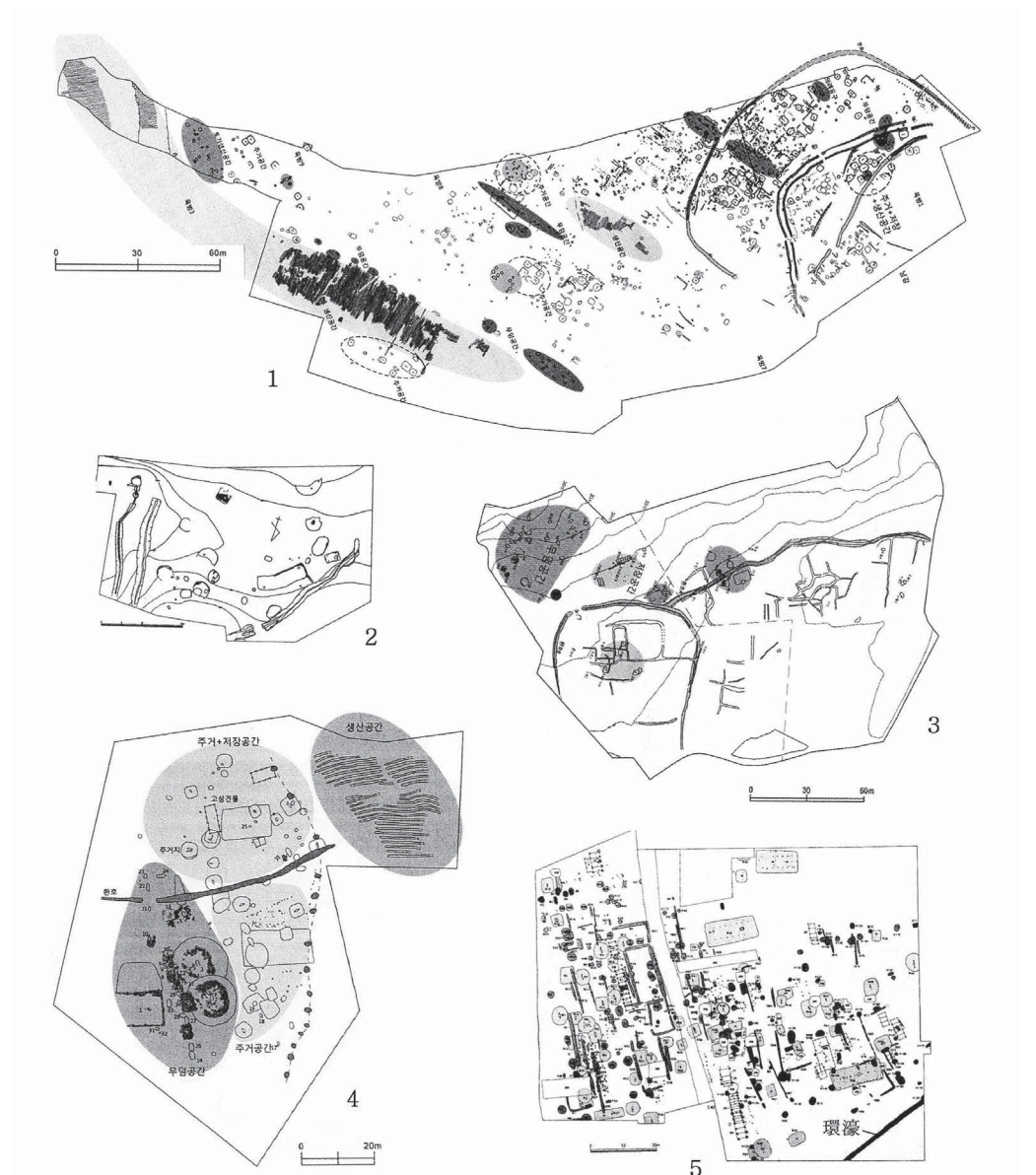


図5 晋州圏の環濠遺跡

- 1：晋州大坪里遺跡，2：山淸沙月里遺跡(釜慶大)，3：晋州耳谷里遺跡，4：晋州加虎洞遺跡，  
5：晋州草田洞遺跡（高旻廷 2010 から一部改変の上転載）

この地域で調査された環濠遺跡は計8ヶ所であるが、そのうち山清沙月里遺跡の2つの環濠を除けば、いずれも沖積地において環濠が確認されている。その形態はA1型とB1型である。いずれも多数の住居址、墓群、堅穴、耕作遺構などと組み合って環濠が造営されている。晋州大坪里遺跡の環濠の場合、その内側に木柵が設置されている。

大邱圏は、洛東江の支流たる琴湖江の流域と、密陽江の流域（清道地域）が該当する。この地域においても、環濠は平野部で確認されている。大泉洞遺跡の環濠はやや弧状を呈する「一」字形でD型に属する。環濠周辺の比較的広い範囲において発掘調査がなされたが、環濠の全貌を把握するには至っていない。その他の環濠はいずれもE型であり、大邱や清道地域では完全に一周する環濠は確認されていない。やや不明瞭なところもあるが、まさしく環濠として空間を取り囲むという意味合いが弱かったものと判断できる。溝の平面形態も、不定形、弧形、「一」字形であり、厳密な意味で環濠であるのか否かについては、今後も検討が必要であろう。図6の東川洞遺跡の溝は、環濠というよりも水路に近いといえよう。

それとは対照的に、検丹里文化分布圏に属する蔚山や慶州などの韓半島東南海岸地域では、7遺跡において環濠が調査され、いずれもが丘陵上に営まれたものである（図7）。その多くはA1型の環濠である。この地域では、河川の幅が狭く、その長さも短いために、沖積平野があまり発達していない。青銅器時代においては今よりも海水面が高かったため、現在の河川流域は当時には干潟あるいは湿地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よって、集落を営んだり農耕地として利用するには適さない環境であったろう。そのため青銅器時代の集落は丘陵に集中的に立地し、他地域に比して青銅器時代の遺跡の密集度が高いものと判断できる。



図6 大邱圏の東川洞遺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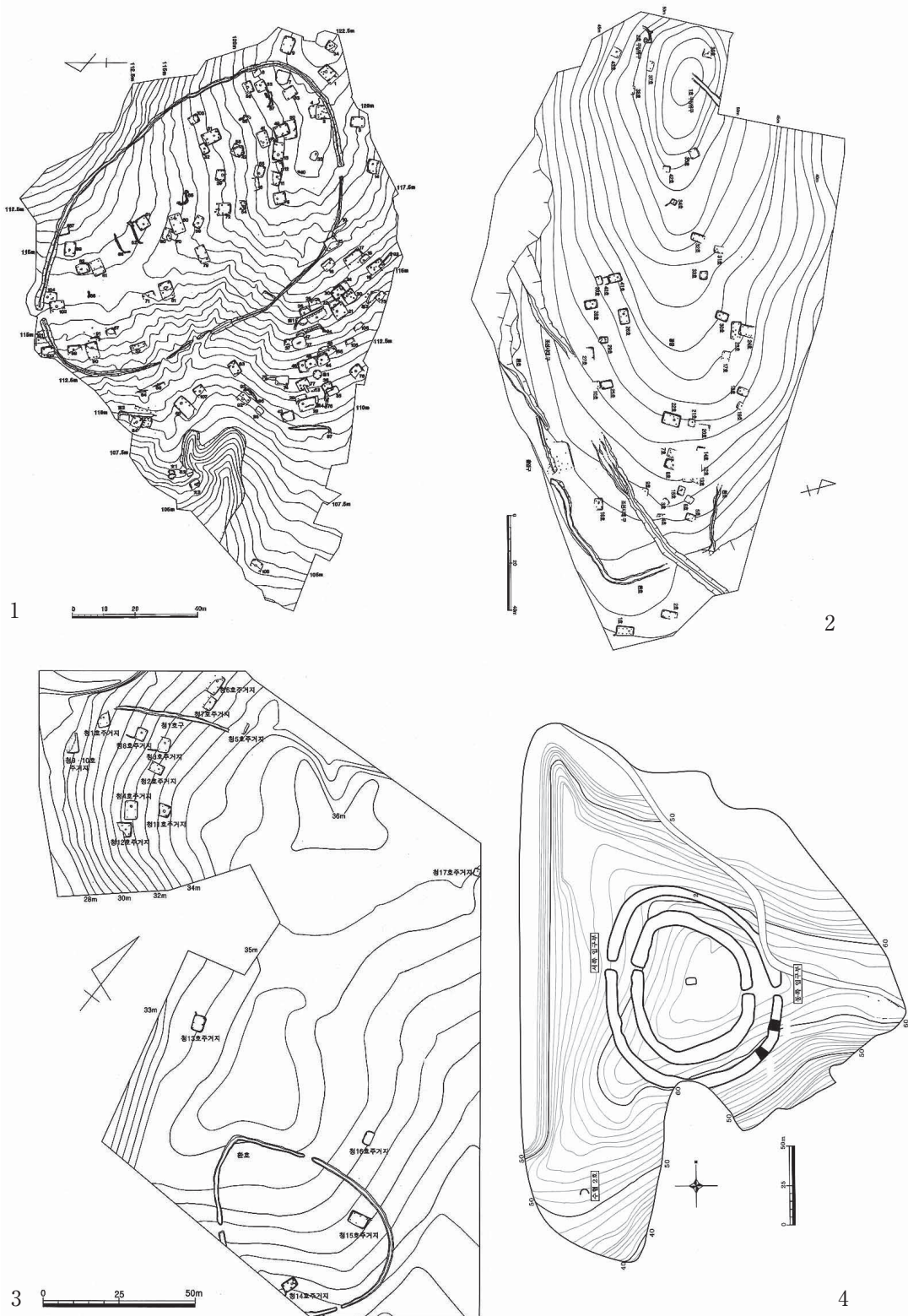


図7 蔚山圏の環濠遺跡

1: 蔚山檢丹里遺跡, 2: 蔚山川上里遺跡, 3: 蔚山明山里遺跡, 4: 蔚山蓮岩洞遺跡

## 2) 機能

蔚山検丹里遺跡において環濠が初めて調査された後の10年間ほどは、環濠が防御施設であ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の疑義はなかったようである。しかし、1990年代以降の大規模な開発に伴う発掘調査の増加によって資料が蓄積されたことにより、徐々に環濠の防御機能についての疑念が生じるようになった。あまりにも狭い環濠の幅、所々で環濠が途切れる点、環濠の内外を問わず分布する住居址など、一般的な防御集落とするには不自然な状況が把握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

そして、1990年代末頃に、環濠が取り囲むのは儀礼的かつ象徴的な空間であるという見解が提示された[李盛周1998]。また、裴徳煥は2000年まで調査された環濠遺跡を整理する中で、環濠の機能を防御、境界、排水、儀礼の4つに区分した[裴徳煥2000]。その中で、境界は非常に包括的な用語であることや、排水機能を有する溝を環濠と呼べるのか、などの問題は指摘できよう。

そして2000年代に入ると、徐々に儀礼空間としての意味合いが強調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く。例えば、徐吉徳は、環濠の幅や深さが防御機能を担うには不十分であること、環濠内部において確認できる住居址の数が少ないこと、水源が確保されていないこと、そして意図的な掘削とは認めがたい部分が存在することを主な理由として、環濠は防御的な機能を有してはいなかったと結論付けた[徐吉徳2006]。筆者もまた蔚山地域の環濠遺跡を検討する中で、環濠は儀礼の場を囲うものであり、拠点集落の指標であるという見解を提示した[李秀鴻2012]。蔚山圏の環濠遺跡についてはこの立場を堅持している。ただし、晋州圏については別の視角からの検討が必要と考え、ここでは晋州圏と蔚山圏を分けてあらためて環濠の機能について検討してみたい。大邱圏の環濠は上述のように平面形態が「一」字形のE型であることから、厳密には環濠ではない可能性があり、排水用の溝と関連付けて別稿で検討することにした。

まず蔚山圏について検討する。かつて筆者は蔚山地域の拠点集落を検討する中で、環濠と環濠が可視圏に入る他の集落の複合体を拠点集落と把握したことがある[李秀鴻2012](図8)。その根拠として、環濠遺跡の立地や内部空間に関する以下の特徴を挙げ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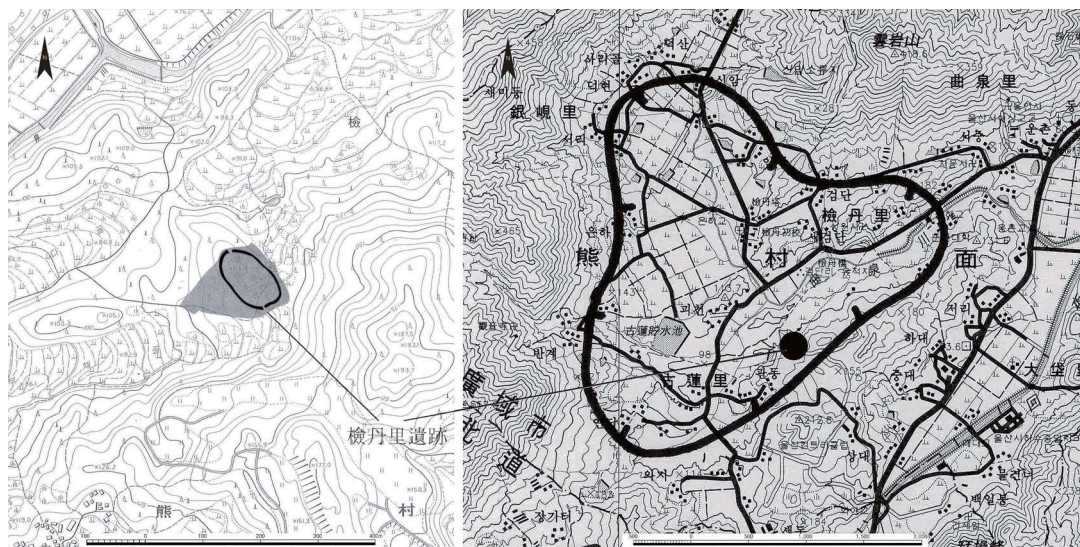


図8 檢丹里遺跡周辺の地形図と檢丹里拠点集落の範囲



- ①水平または上方へ突出した丘陵部に立地する点。単に周辺の眺望が良好なだけでなく、むしろ周辺の集落を見通すことができる地点に立地する。
- ②交通の要衝に位置し、河川や広い平野部を見下ろすことができる点。
- ③環濠の掘削面と環濠に囲まれた内部空間の最も高い地点を比較すると、後者の標高が高い。
- ④内部空間に住居址が存在しなかったり、存在してもその数は非常に少ない。

このような観点に立てば、蔚山地域においてこれまで調査された拠点集落は8ヶ所であり、拠点集落の間の距離は6～10km程、拠点集落の空間的な範囲は径3km程と把握できる。

次に晋州圏について検討する。その特徴を蔚山圏と対比すると、晋州圏の環濠は沖積地に位置することから①や③については当てはまらない。一方で、交通の要衝に立地するという②については共通である。晋州圏では河川が蛇行する地点に環濠遺跡が位置しており、集落の立地としては卓越した環境にある。

そして、最も大きな違いは④についてである。晋州耳谷里遺跡を除く晋州大坪里遺跡、草田洞遺跡、加虎洞遺跡、山清玉山里遺跡などは、その周辺がすべて調査された場合にどれほど多くの住居址が分布しているのか、簡単には予測ができないほど非常に多くの住居址が分布している。また、蔚山圏の青銅器時代の遺跡においては、遺構は住居址が大部分であるのに対し、晋州圏では墓、竪穴、落とし穴、掘立柱建物など多様な遺構が存在することも大きな特徴である。

遺構が早く埋没してしまう沖積地という地理的環境のため、環濠と同時期にどのくらいの数の住居が存在したのかについては正確には知り得ないが、それでも住居址の数や遺跡の規模をみただけでも、大規模な集落であったことは確かである。

環濠の形態な特徴をみると、加虎洞遺跡以外はいずれも平面円形もしくは楕円形を呈している。出入口を除けば、環濠は閉曲線を描いており、内部空間と外部空間を確然と区別している。大坪里遺跡玉房1地区のように、環濠内側に木柵が確認された事例もある。晋州博物館による玉房1地区1次調査のように、環濠に木柵が確認されなかった場合もあるが、2年後に晋州博が調査した環濠と一連の環濠が調査された際には、やはり木柵が確認されたため、大坪里遺跡の環濠全体に木柵が備わっていた可能性もあろう。木柵は環濠から2～3m内側に設置されている点が特徴的であり、杭間は2m程、杭の太さは径50～60cmほどである。

蔚山圏の環濠はその内部に住居址が存在しないことが多いため、防御用とは考えがたいが、晋州圏における木柵と組み合った環濠は、防御的機能を有していると判断できる。玉房1地区では環濠内部における住居址の密度が明らかに高い点も、環濠の防御的機能と関連づけて考える必要がある。ただし、環濠が防御的機能を有しているからといって、地域間の葛藤を前提とした戦争を念頭に置くと同時に、野生動物の侵入を防ぐための施設であった可能性もまた考慮すべきである。ともあれ、環濠内部の住居と外部の住居の間に境界が設けられたことに重要な意義があったと考えられる。そして、大坪里遺跡玉房1地区の環濠は、大きく4列から構成されるが、そのすべてが同時期に機能していたというよりは、集落の規模の拡大と合わせて、内側の溝から外側の溝へと順次拡大していったと推定される。

このように、晋州圏の環濠は防御的または施設群の境界としての機能を備えているが、一方で拠点集落の指標としての役割は、蔚山圏とは共通的と考える。交通の要衝という環濠集落の立地、調

査範囲のみならずその周辺の地理的環境からみた遺跡の規模、多様な遺構や高床家屋の存在などから判断した場合、周辺の集落群の中心地と評価できる。大坪里遺跡では青銅器時代後期の代表的な威勢品たる琵琶形銅剣は出土しなかったが、玉の加工が分業で行われたという研究成果〔庄田2009〕からもうかがえるように、玉の生産と流通の中心地であったことは確かである。すなわち、集落間のネットワークが本格的に機能しており〔高旻廷 2010〕、その中核的な役割を担っていたと考えられる。

#### ④……………三韓時代の環濠

三韓時代の環濠は現在までに21遺跡において調査された。そのうち、三韓時代前期の環濠は17ヶ所、後期の環濠は4ヶ所である。青銅器時代の環濠が嶺南地域に偏在していたのに対し、三韓時代の環濠は全国的に分散的に分布している。ただし、湖南地域においては三韓時代前期までの調査事例はない。三韓時代の環濠も前期と後期に分けて検討する。

### 1. 前期の環濠

三韓時代前期に属する舒川月岐里遺跡はA1型である(図9)。環濠内部に前時期の松菊里型住居址6基、方形住居址8基が分布する。表5は炭素14年代の測定結果である。報告書には遺物の出土位置が詳細には記述されていないが、環濠で出土した三韓時代前期の標識的な遺物である粘土帶土器、豆形土器、黒色磨研土器は安定した層で出土したとみて差し支えはない。炭素14年代の測定結果をみても、住居址はおおむねBP2770±40からBP2350±40程度であるのに対し環濠はBP2240±60であり、両者の時期差は明らかである。報告書では、炭素14年代測定結果は異なっているが、出土遺物が類似することから近接した時期に営まれたものと評価している〔高麗大 考古環境研究所 2005〕。しかし、住居が廃棄された後に三韓時代前期に環濠が造営されたとみるべきであろう。ただし、月岐里遺跡の環濠は三韓時代の環濠の中でも最初期の可能性があり、青銅器時代の環濠の伝統を受け継いだものと考えられる。

最近、金権九は、青銅器時代と三韓時代前期に丘陵の頂上部に設置された12ヶ所の高地性環濠は天

表5 月岐里遺跡の炭素14年代

遺構	測定年代 (BP)
KC-005号住居	2350 ± 40
KC-007号住居	2770 ± 40
KC-010号住居	2530 ± 40
KC-012号住居	2490 ± 80
環濠	2240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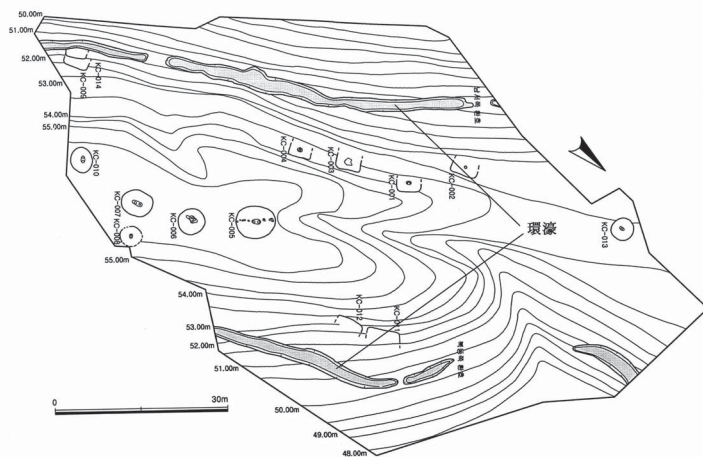


図9 舒川月岐里遺跡

神儀礼の場であり、掛けたり吊るすための環や孔がある十字日光文異形青銅器の一部や木製彫刻品は、高地性環濠において用いられたものであるとの見解を提示した [金権九 2012]。遺物についての実証が難しいが、環濠が儀礼空間という点については全面的に同意する。筆者も三韓時代前期の環濠の最大の特徴は、防御的機能（少なくとも戦争を念頭に置いたもの）を完全に喪失した点にあると考えている。形態的にみても、慶山林堂遺跡の環濠を除くと陸橋状の出入口はほとんど確認できない。また、金海大成洞遺跡の環濠以外には、平地に造営された環濠は確認されておらず、多くは丘陵の頂上部近くに立地している。

このような三韓時代前期の環濠の典型的な事例としては、蔚山校洞里 192-37 遺跡、安城盤諸里遺跡、江陵芳洞里遺跡など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それぞれの概要は次の通りである。

◆蔚山校洞里 192-37 遺跡 (図10)

東西 2km, 南北 2km 程の扁平な丘陵の北西側端部に環濠が位置している。地表調査と発掘調査を通じて、丘陵全体が青銅器～三韓時代の遺跡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環濠が位置する範囲は一部のみが調査されたが、トレンチ調査によって未調査区間における環濠も確認できたため、環濠全体の平面形態と規模を把握できる。環濠は丘陵頂部を隅丸方形に取り囲む形態である。環濠の全周は 190 m, 内部空間の部面積は 2,780㎡程と推定される。溝幅は最大 3 m, 深さは 0.7 m 程である。

環濠の内部には三韓時代の竪穴が分布するが、主環濠の外にも竪穴が分布するために、内部の竪穴を保護するために環濠がめぐらされたとは考えがたい。主環濠の外側には、それと比して狭くて浅い溝が、1～5重になってめぐっている。a 号溝が位置する西側では 1 重であり、e, f, g, h, j, k 号溝が位置する北側では最大 5 重となる。ただし、内側から 1 列目の e 号溝と 2 列目の f 号溝, 4 列目の j 号溝と 5 列目の k 号溝がセット関係にあったと見れば、大きくは 3 重であった理解することも可能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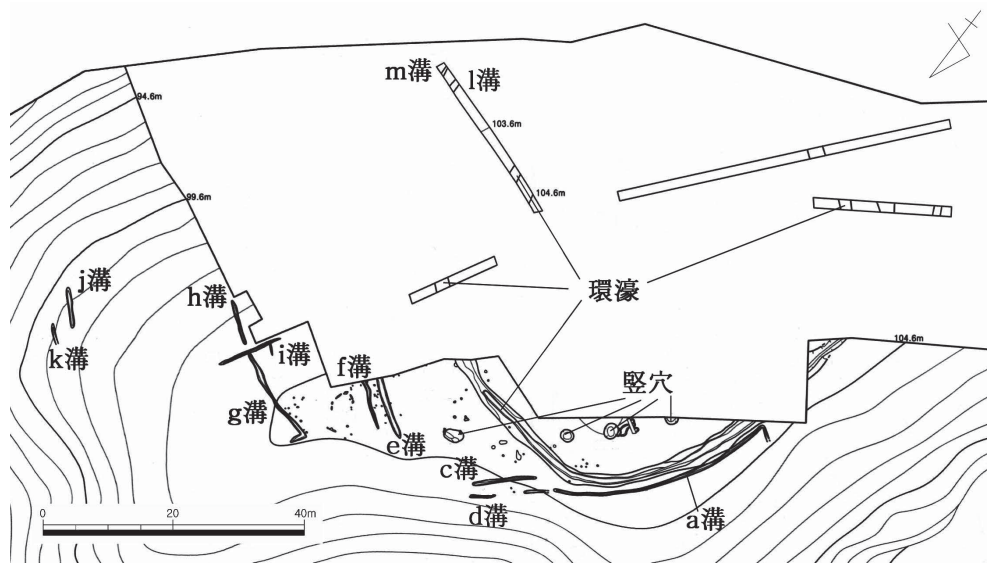


図 10 蔚山校洞 192-37 遺跡

これらの小型溝は丘陵頂部の平坦面に限って設置されたようである。まず西側に位置する a 号溝の外側はすぐに傾斜面となっている。ゆえに 1 重にとどまったと考えられる。東側では保存区域におけるトレンチ調査において平坦面に位置する 1 号溝、m 号溝が確認された。これらは北側の e、f 号溝とそれぞれ一連である可能性が高い。そして北側では環濠外側の平坦面が広がったために、j、k 号溝に至る多くの溝を設置したと判断できる。

環濠は隅丸方形を呈し、その 2 辺それぞれの半分以上が調査されたにもかかわらず、陸橋状の施設が確認できなかったことから、陸橋のようなものは存在しなかった可能性が高い。ただし、陸橋以外の形態をとる出入口が 1 ヶ所存在していたとすれば、その位置は、平坦面が尾根上に続く南側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または相対する 2 ヶ所の出入口が存在したとすれば、南側の 1 ヶ所と、g 号溝と h 号溝の間、i 号溝の位置に出入口が存在したと推測できる。上述した青銅器時代後期の晋州大坪里玉房 1 地区の場合、陸橋の内側に環濠と直交する小型溝が設置されており、i 号溝と類似する。

#### ◆安城盤諸里遺跡(図11)

環濠は丘陵の頂上部を円形に取り囲むように設置されている。環濠の内部中央が頂部にあたり、自然石が突出している。環濠の残存長は 71 m、幅 3 m、深さ 1.5 m 程である。環濠から 1 m 程外側に離れた位置には、環濠に沿う形で幅 60 cm、深さ 25 cm 程の小形溝がめぐっている。さらにその外側 20 m 程離れた位置にも小形溝が設置されている。等高線に沿ってめぐっていることから、この溝も環濠に関連する可能性が高い。このように、盤諸里遺跡の小型溝は上述の校洞里 192-37 遺跡における環濠外側の小形溝と類似した様相を示している。

調査団は、環濠内部の自然石を祭壇と把握している。自然石は平面長方形で、長さ 414 cm、最大幅 320 cm、高さ 86 cm を呈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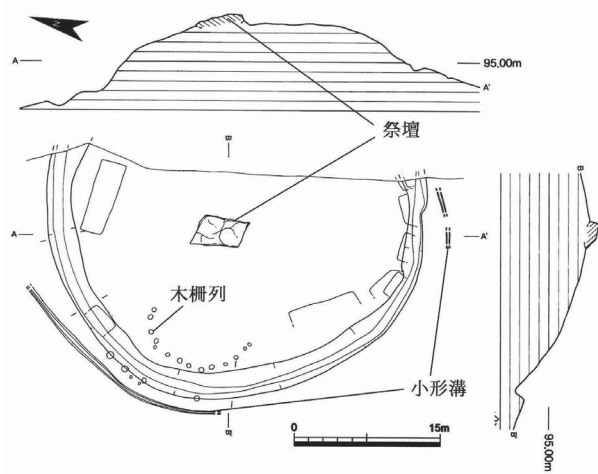


図11 安城盤諸里遺跡



図12 江陵芳洞里遺跡

◆江陵芳洞里遺跡(図12)

等高線に沿う方向で1列の環濠が設置されており、その外側17m程離れた位置に小形溝が設置された。報告者は外側の小型溝は削平を受けており本来は主環濠と同一の規模であったとみて、二重環濠と判断している。しかし、韓半島南部地域において同様な規模を有する二重環濠が17mも離れてめぐる事例は確認されておらず、校洞里192-37遺跡や盤諸里遺跡と同様に、主環濠の外側に設置された小型溝である可能性が高い。

上述の3遺跡をみると、典型的な三韓時代環濠はA2型と判断できる。1列の主環濠を丘陵の頂上部を取り囲むように設置し、主環濠の外側に隣接して小型溝をめぐらせている。環濠から離れるにつれて、小型溝は丘陵の形状にあわせて等高線に沿うように設置されるようになる。

この3遺跡以外に、儀礼的な機能が際立った遺跡の典型的な事例としては、陝川盈倉里遺跡、富川古康洞遺跡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両遺跡の概要は次の通りである。

◆陝川盈倉里遺跡(図13)

河川に隣接した単独丘陵に位置する。多重の環濠が等高線に沿う形で曲走するC型である。溝幅はそれほど広い方ではなく、その反対側には溝は設置されていない。環濠の内部には住居址と竪穴が分布する。特異な点は22号、28号竪穴から細形銅剣が出土した点である。韓半島では細形銅剣は墓から出土する場合がほとんどであり、唯一、盈倉里遺跡において竪穴から出土した。威勢品たる細形銅剣が出土したことからみても、環濠の内部は儀礼空間であったことはうかがえる。盈倉里遺跡について『三国志』魏志東夷伝の「蘇塗」と関連付ける見解もある。

◆富川古康洞遺跡(図14)

環濠という用語を、集落を取り囲む溝施設という意味あいを用いるとすれば、本稿での検討対象たる48遺跡の多くを環濠と定義することは難しくなってしまう。しかし、筆者は内部空間を区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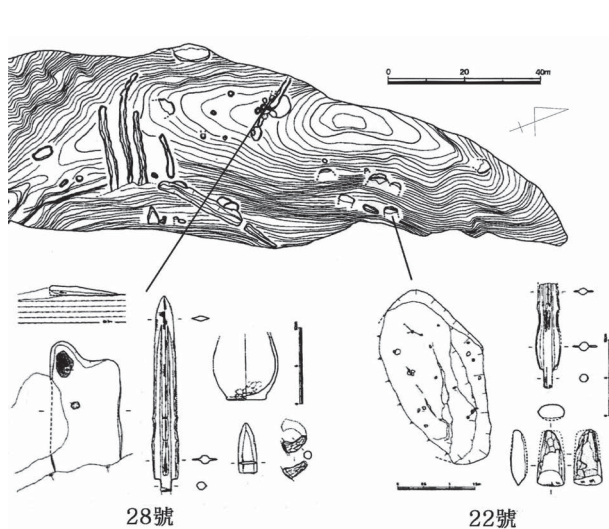


図13 陝川盈倉里遺跡と細形銅剣が出土した遺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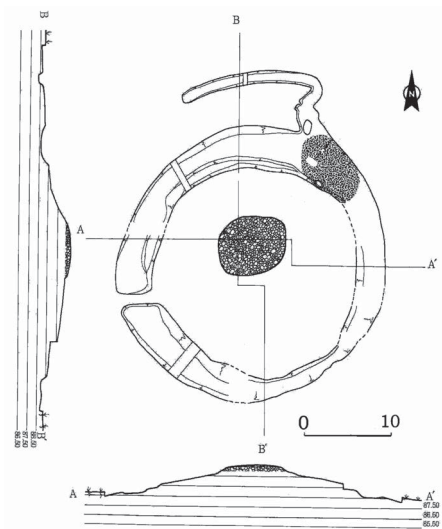


図14 富川古康洞遺跡

する、もしくはどのような遺構であったとしてもそれが位置する一定の空間を区画するために掘削された溝施設であれば、環濠という用語を用いる。したがって、この富川古康洞遺跡も環濠遺跡に含めた。

丘陵の頂上部に人為的に石材を積み、その周囲に溝をめぐらせた形態である。報告書では環濠と呼ぶには規模が小さいため、「環溝」としている。内部中央の一辺6m程範囲（平面形状）に石材を積み上げており、その断面形はやや凸レンズ状である。報告者はこれを祭壇としている。この積石部から10mほど離れて溝を平面円形状にめぐらせている。内部空間は直径30m、溝幅3～4m、深さは1m程である。北側では小型溝が主環濠から外側にのび、主環濠にそって弧状に走っている。報告者は古康洞遺跡の性格を、盈倉里遺跡と同様に蘇塗的なものの原型と把握する。

三韓時代前期において儀礼空間を囲う環濠は、丘陵頂部に設置されている。また、空間の中央には古康洞遺跡では人為的な積石施設が、盤諸里遺跡では自然石がそれぞれ存在する。この空間が儀礼の場として実際に利用されたのか、積石や自然石自体が儀礼の対象であったのかについては、不明瞭な部分があるが、少なくとも環濠が儀礼空間を外部と区画するために造営されたという点は確実であろう。烏山佳長洞遺跡の頂上部付近にも、数個の自然石が露出しており、同様な性格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図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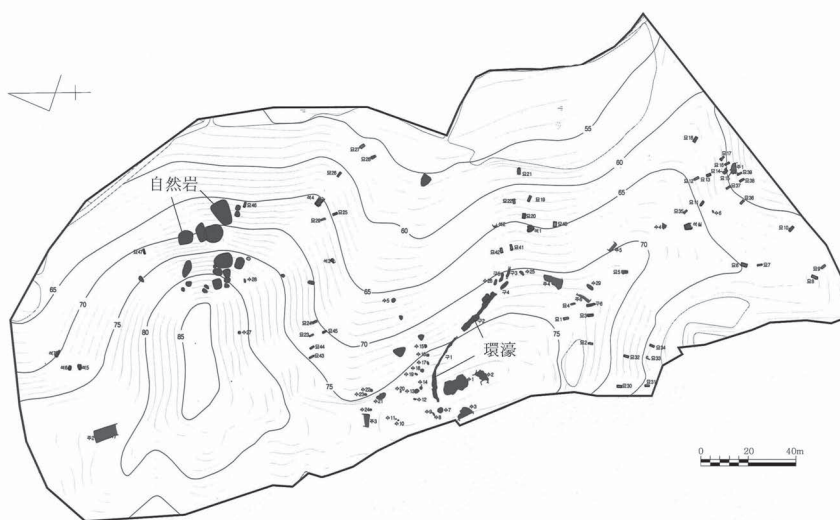


図15 烏山佳長洞遺跡

これまで取り上げてきた環濠遺跡は決して防御集落ではない。遺跡の立地や環濠内部の祭壇をかながみる時、環濠内部は儀礼空間であり、環濠は神聖な場を外部と区画するために掘削されたものと判断できる。

## 2. 後期の環濠

三韓時代後期の大きな特徴は、何よりも環濠遺跡の数が急激に減少する点である。ただし、その種類は比較的多様である。

**順天徳岩里遺跡(図16-2)**

3重に丘陵を取り巻く環濠である。最も内側の溝から粘土帯土器が出土しており、三韓時代前期まで時期が遡る可能性もあるが、他の2列の溝からタタキ調整の土器が出土しており、中心年代は後期と考えられる。所々で溝が途切れる地点があるが、これは後世の削平によるものではなく、その部分が岩盤であるために意図的に掘削しなかったものと把握できる。それでも、丘陵を全体的に取り囲んでおり、環濠の幅が三韓時代前期に比べて広がっている点が特徴的である。

**梁山平山里遺跡(図16-1)**

丘陵の地形が緩慢な地点にのみ一列の溝を造営している。出入口が備わっており、多数の柱穴が確認された。門のような施設があ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また内部に木柵が確認され、調査団は土塁も存在したものと推定している [東亜大学校博物館 1998]。

**金海鳳凰台遺跡**

2次にわたって調査が行われた。丘陵部分についてはトレンチ調査であったが、複数の溝が確認されている。丘陵ふもとの進入路敷地の調査においても環濠が確認された。また、その環濠の外側1m離れた地点で5基の柱穴が確認され、木柵が存在した可能性があるという [釜山大学校博物館 1998]。

大坪里遺跡(青銅器時代後期)や平山里遺跡では、木柵が環濠の内側に設置されたのに対して、鳳凰台遺跡の木柵は環濠の外側に設置されている点が特徴的である。平山里遺跡や鳳凰台遺跡の事例からみれば、三韓時代後期には木柵をともなうのが一般的な環濠であったといえるのかもしれ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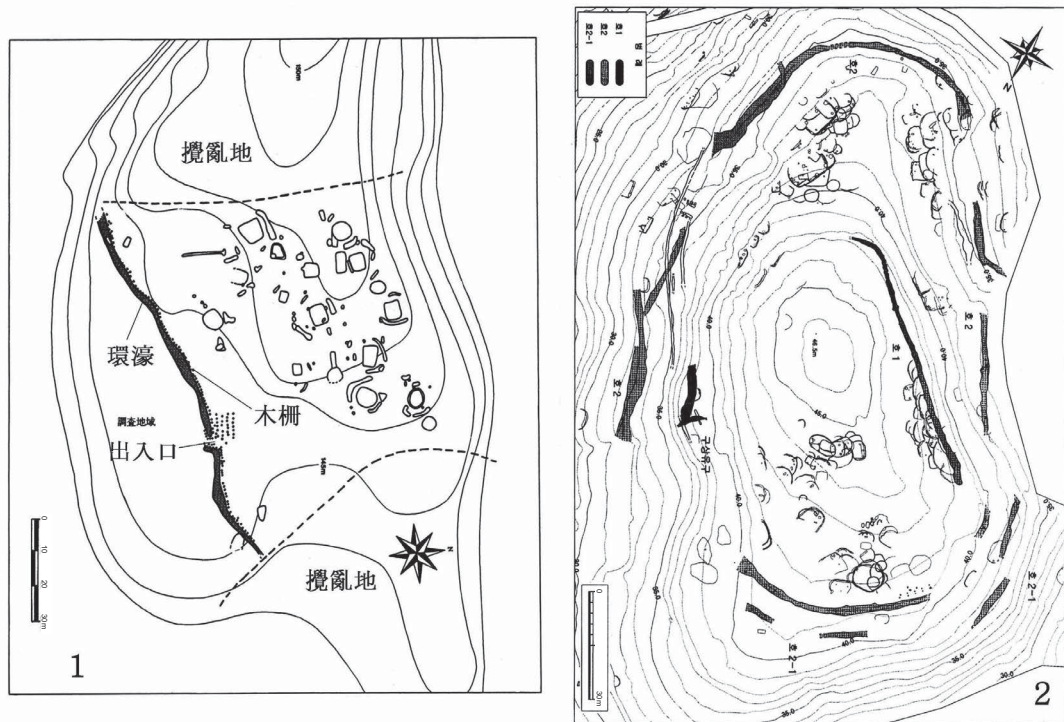


図16 三韓時代後期の環濠遺跡  
1: 梁山平山里遺跡, 2: 順天徳岩里遺跡

い。環濠と木柵という組み合わせが、防御機能の強化を意図したものならば、三韓時代後期の環濠こそが、社会的緊張による集落の保護という役割を担ったものといえよう。そうであるならば、平山遺跡の環濠内部で確認された火災住居址は、戦争による可能性も指摘できる<sup>(2)</sup>。

## ⑤……………環濠の成立・変化の社会的な意味

本章では韓半島南部地域において環濠の成立と変化がどのような社会的な意味を有するのかについて、簡略にまとめてみたい。

### 1. 青銅器時代における環濠の成立

環濠の性格については研究者ごとに見解の相違がみられる一方で、環濠の成立と拡散が農耕社会の成熟と関連を有するという見方については共通である。筆者も、環濠の掘削自体は農耕と直接的に関連しないとしても、環濠を造営した社会的な要因は農耕社会の成熟にあると考える。ただし、環濠の成立の背景を、農耕による余剰生産物の成立とそれに伴う集団間の緊張関係の高まりによるものと直ちに解釈することを是とはしない。韓半島とは距離があるが、中西部ヨーロッパの初期農耕段階には、巨石記念物や儀礼の場の周囲に溝や木柵をめぐらせており、それは防御施設というよりは、象徴的な意味あいを有する区画施設で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 [李盛周 1998]。

筆者は前期の環濠たる清原大栗里遺跡については、上述のように中国東北地域から直接移住してきた集団によって営まれたという安在皓の見解 [安在皓 2009] を支持しており、韓半島における環濠の成立は青銅器時代後期と考えている。また、環濠の成立と拡散は青銅器時代前期と後期を区分する重要な指標であると認識している。ここでの「成立と拡散」とは、単に環濠という施設の出現を指すのではなく、環濠の造営という大規模な土木工事を可能にした社会的な要因を内包したものである。すなわち、単独の集落ではなく一定の地理的範囲内の集落群が同一の目的意識を有し、共同で労働に従事するという社会的雰囲気<sup>(3)</sup>の成熟や、それを可能とした有力個人の登場を重視している。

環濠の成立と拡散に伴う青銅器時代の社会変化には、次のようなものが考えられる。

第1に住居の平面形態が細長方形から円形、(長)方形へと変化する。それにあわせて住居に備わる炉の数も複数から1基へと変化する。これは住居規模の縮小化、そして規格化と連動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これは、1つの住居を営む家族の核家族化を意味するといえよう。

第2に分散的に分布していた住居が、列状もしくは群集して配置されるようになる。そして、以前には2、3基の住居によって集落が形成されていたのに対して、環濠の成立に伴って、住居が密集するようになる。

第3にやはり分散的に分布していた墓が、列状、群集して配置されるようになる。前期の墓が2、3基で群を形成していたのに対して、後期にはより密集して、まるで共同墓地のような様相を呈する。

第4に土器の文様が複合的な構成から、単一の文様構成、無文へと変化していく。土器文様の無文化の社会的な意味あいは今後の検討とせざるを得ないが、少なくとも重要な時期区分の指標であ



ることは確かである。

第5に青銅器時代の代表的な狩猟具たる石鏃が、無茎式から一段茎式へと変化する。無論、これは石鏃製作方法の変化によるものである。青銅器時代前期の無茎式石鏃は擦切技法によって製作されるが、後期になると、より効率的な製作のため、一次加工品たる船形石器を製作の後、それを研磨して製品へと仕上げる方法を採用するようになる〔黄昌漢 2004〕。これによって前期と比較して大量生産が可能となった。

第6に水田の拡散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現在まで朝鮮半島南部地域で調査された水田は、20遺跡である。慶尚南道密陽琴川里遺跡は早期、蔚山也音洞遺跡や無去洞玉峴遺跡は前期と報告されたが、出土遺物から判断すれば、筆者は後期の水田と考えている。筆者は、水田稲作は青銅器時代前期にも営まれていたと想定はしているが、これまでの事例いずれも後期に属するものであり、その中心年代は後期であったと判断している。

以上のような環濠の成立と拡散と連動した社会的な動きは、原始社会がより複雑化し、階層化が進展していく過程を示している。このような社会的な変化こそが環濠造営の要因であった。したがって、世界史的な青銅器時代の定義に基づくのであれば、朝鮮半島における本当の青銅器時代は、この段階から始まったと評価できる。

## 2. 三韓時代における環濠の変化と消滅

これまで、青銅器時代の幕が下り三韓時代へと移っていく要因を、中国東北地域の遼寧地域から粘土帯土器を用いる集団が移住してきたことに求める見解が一般的であった。すなわち、燕将秦開による古朝鮮侵攻と、それに起因した古朝鮮系集団の南下によって朝鮮半島南部地域に円形粘土帯土器文化がもたらされ、青銅器時代が終焉を迎えたという考え方である。炭素14年代の導入によって円形粘土帯土器の上限年代が遡るようになってからも、韓半島南部地域における粘土帯土器の出現背景を、遼寧地域に経済的基盤を置く人々の集団的な移住に求める見解には変化はないようである。

しかし、たとえ遼寧地域からの大規模な移住が、三韓時代の始まりの主たる要因であったとしても、多くの青銅器時代の遺跡を残した在来の集団とその文化が、一時に消滅してしまい、新来の三韓時代人とその文化に取って代わられた、というわけでもなからう。中国東北地域からの文化的な衝撃がいかに大きかったとしても、韓半島南部地域の在地的な要素が維持される部分が存在したこともまた確かである。例えば、円形粘土帯土器文化の関連遺物が出土した支石墓や松菊里型住居の存在、また有溝石斧が三韓時代においても用いられる状況などは、その代表的な考古学的事象と評価できる〔朴辰一 2000〕。

筆者は、外部からの文化要素は確かに流入するが、それと内在的な文化要素が融合することで、三韓時代は進展を遂げたと考えている。周知のとおり、外部要素には円形粘土帯土器や木棺墓というものが<sup>(3)</sup>あり、前時代からの伝統的な要素としては支石墓、松菊里型住居址、そして環濠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三韓時代前期における環濠の存在は、特に儀礼空間を区画するという精神的な文化要素が受け継がれているという点において重要であろう。

三韓時代後期には、同時期の日本列島に比して環濠遺跡が急減する。三韓時代の環濠が日本列島の弥生時代中期以降のように、数の増加あるいは規模の極大化を示さなかった理由として、楽浪

や遼東地域から中国式土城の影響を受けたためという見解がすでに提示されている〔李盛周1998〕。三韓時代後期の環濠は木柵と組み合うことが多く、そこに防御的な機能の強化を読み取ることが妥当であるならば、十分に妥当性のある見解として評価できる。

ただし、それと別の観点からも環濠消滅の背景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李盛周の見解どおりであれば、この時期に木柵と組み合う環濠や土城の事例が増加傾向をみせなければならないが、必ずしもそうってはいない。三韓時代後期は三国時代へと続く段階であり、各地の国が統合されていく過程の段階である。したがって、この統合過程のなかで、環濠遺跡を核とした地域のまとまりが、より大きなまとまりへと再編されるなかで、環濠遺跡が徐々に解体され、その社会的雰囲気の中で<sup>(4)</sup>ついに消滅したものと推測できる。

### 3. 日本列島の環濠との関係

1990年度に検丹里遺跡が調査される以前には、弥生時代の環濠の源流は中国にあり、そこから直接伝来したという見解が主流であった。しかし、近年では、韓国における環濠遺跡の調査事例が増加したことにより、自然と韓半島南部地域と関連付けて解釈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く。北海道静川遺跡のように、縄文時代晩期の環濠も調査され、北方ルートによる伝播も想定されているが〔寺沢1999〕、直接的な祖型はやはり韓半島南部地域に求められる可能性が高い。弥生時代開始期の遺跡から出土している大陸系磨製石器を考慮すれば、日本列島の環濠の源流は韓半島南部地域の中でも、南山遺跡や網谷里遺跡が位置する馬山、昌原地域に求められる可能性がある。特に、網谷里遺跡では弥生系突帯文土器が出土し、韓半島南部地域と北部九州地域の直接的な交流が垣間見える。

したがって、日本列島における初期の環濠もまた、社会的な緊張の高まりを要因とした防御的機能を備えた施設ではない可能性が高い。弥生時代前期までの環濠の内部に住居址がそれほど多くない点も、このような見方を傍証するといえよう。板付遺跡の場合、環濠内部が後世の削平を受けたため、住居址の痕跡が残らなかったとする見解が一般的ではあるが、例えば、片岡宏二は弥生前期の環濠内部には住居が存在しなかったと想定し、板付遺跡の場合も当初から住居が存在しなかった可能性について言及している<sup>(5)</sup>〔片岡2003〕。

板付遺跡の環濠内部における住居の有無については今置くとしても、弥生時代前期の環濠の機能が当初は戦争の所産としての防御的なものから徐々に象徴的なもの〔武末1990、吉留1994〕へ、あるいは排水用〔前田1996〕へと移っていくという見解に触れる時、筆者は出現期の環濠もまた防御的な機能よりもむしろ儀礼的な意味合いが強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考えている。そして、防御的な機能とは野生動物から貯蔵穴を保護するような性格のものではなかったか。そして、環濠には実質的な機能よりも大規模な施設の造営ということ自体に重要な意味が込められていた〔吉留1994〕と考えたい。

最後に、韓半島南部地域の青銅器～三韓時代における環濠と弥生時代の環濠は、類似する点も多いが、その一方で相違点も存在することを指摘しておきたい。例えば、韓半島では内部に貯蔵穴のみが存在する環濠はこれまでのところ確認されていない。ただ、これは青銅器時代や三韓時代の典型的な貯蔵穴が確認されていないことに起因するのかもしれない<sup>(6)</sup>。また、韓半島南部地域において環濠と木柵が組み合う場合、弥生時代の環濠とは逆に木柵は環濠の内側に設置される。土塁が存在

する場合もやはり環濠の内側に設けられている。そして、日本列島では弥生時代中期になると、関東地域に至るまで環濠が急増するが、その頃の韓半島では環濠は急速に衰退していく。

以上のような相違点が何を意味するのかについては、今後の研究課題とせざるをえない。

## おわりに

以上、韓半島の環濠遺跡について検討してきた。現在までに調査された環濠遺跡を網羅的に整理したことに一定の意義をみいだしたい。

②章の分類を設定する際に、はたして環濠にはどのような属性が存在するのかについて考えてみた。立地、平面形態、規模、断面形態、内部施設の種類の、堆積層の様相など実に多様である。本稿においてこのような、より細部的な属性についての検討が不足している点については、率直に認めたいと思う。

筆者はこれまで晋州大坪里遺跡、蔚山校洞里 192-37 遺跡をはじめとする 6ヶ所の環濠遺跡の調査に参加した。調査当時に抱いた疑問点を本稿においてすべて解決できたわけではない。例えば、環濠内部の土層の中間に確認される木炭を含んだ暗褐色の腐植土層の存在、遺物がたいていの場合に溝底面よりも 50～100cm 程度高い位置で出土する状況、環濠の改修や補修あるいは廃棄後の再利用の問題など、解決すべき課題は山積みである。このような遺構の細部についての分析を経ずに、集落や当時の社会的変化を論じ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思いを抱くこともまた確かである。今後の研鑽を期するよりほかない。

そして、筆者は 2012 年度に日本列島の環濠遺跡の事例とその関連資料を集成する機会を得た。環濠における日本列島と韓半島の関係性についても、今後の課題としたい。

## 謝辞

筆者は 2012 年 4 月 1 日～9 月 30 日まで、国立歴史民俗博物館において外国人研究員として滞在する機会を得た。この期間に日本列島の環濠集落に関する資料を集成し、そのいくつかについては実見することもできた。歴博での研究生活においては、藤尾慎一郎先生をはじめとする歴博の諸先生方には色々のご助力いただいた。また、韓半島の環濠について安在皓先生に多くのご助言を賜った。末筆ではあるがここに感謝の意を表したい。

## 註

(1)——道項里遺跡については、かつて日本で環濠に関する簡略な発表を行った際に時期不明とした。しかし、報告書を検討した結果、環濠内部から三国時代の陶質土器片が出土した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ため、三国時代の環濠と判断した。

(2)——青銅器時代の火災住居址については、戦争による放火というよりも、むしろ住居の廃棄時における意図的な放火、墓に転用する際の意図的な放火などによるも

のも含まれると理解している。

(3)——青銅器時代にも木棺墓は存在したというのが、近年の一般的な見解である。晋州大坪里玉房 1 地区において土壙の床面において板材を結構した痕跡が確認されるなど、青銅器時代の木棺の調査事例が増加していることは確かである。ただし、青銅器時代の木棺墓は墓壙内部で板材を組み合わせており、既存の石棺墓と同様な構築方法である。すなわち、石材を木材へ変更したにすぎ

ない。一方で、三韓時代前期の木棺墓は屍身を安置した木棺を墓壙に納めるものであり、青銅器時代の木棺墓との違いは大きいと考える。

(4)——環濠遺跡の解体や日本列島への伝播については安在皓氏のご教示を受けた。

(5)——武末純一は備後守屋舗遺跡などの例を挙げ、弥生時代前期に環濠内部に堅穴住居が分布する集落が存在

したとする〔武末2011〕。ただ、環濠内部に住居址が確認される場合、その住居址はいずれも平面形態が円形で作業孔を有する松菊里型の住居址である。

(6)——江陵芳洞里遺跡の堅穴の中で2基については貯蔵穴として報告されたが、堅穴の深さや断面形態、出土品を考慮すれば、果たして貯蔵穴であるのか否か、再検討が必要であろう。

## 参考文献

- 高 旻廷 2010 「南江流域 青銅器時代 後期 聚落構造와 性格」『嶺南考古學』54 嶺南考古學會。  
金 權九 2012 「青銅器時代—初期鐵器時代 高地性環溝에 關한 考察」『韓國上古史學報』76 韓國上古史學會  
金 鐘一 2006 「景觀考古學의 理論的特徵와 適用의 可能性」『韓國考古學報』58 韓國考古學會  
朴 辰一 2000 『圓形粘土帶土器文化研究』釜山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裴 德煥 2000 「嶺南地方 青銅器時代 環濠聚落研究」東亞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徐 吉德 2006 『圓形粘土土器의 變遷過程 研究』世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安 在皓 2006 『青銅器時代 聚落研究』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安 在皓 2009 「南韓 青銅器時代 研究의 成果와 課題」『東北亞 青銅器文化 調查研究의 成果와 課題』學研文化社  
李 相吉 2000 『青銅器時代 儀禮에 關한 考古學的 研究』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 秀鴻 2012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研究』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李 盛周 1998 「韓國의 環濠聚落」『環濠聚落과 農耕社會의 形成』嶺南考古學會 九州考古學會 第3回 合同考古學大會  
李 弘鍾 1996 『青銅器社會의 土器와 住居』西京文化社  
都出比呂志 1993 「環濠集落の成立と解体」『考古学研究』29 考古学研究会  
藤口健二 1986 「朝鮮無文土器と弥生土器」『弥生文化の研究3』弥生土器Ⅰ, 雄山閣  
吉留秀敏 1994 「環濠集落の成立とその背景」『古文化談叢』33 九州古文化研究会  
前田豊邦 1996 「弥生時代の大溝覚書」『紀要 創刊号 村川行弘先生古稀記念特集』財団法人のじぎく文化財保護研究財団  
武末純一 1998 「日本の環溝(濠)集落—北部九州の弥生早前期を中心に」『環濠聚落과 農耕社會의 形成』嶺南考古學會・九州考古學會 第3回 合同考古學大會  
武末純一 2011 「沖ノ島祭祀の成立前史」『「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研究報告Ⅰ 「宗像・沖ノ島と関連遺産群」世界遺産推進会議  
片岡宏二 2003 「環濠の新解釈」『三沢北中尾遺跡』小郡市教育委員会  
藤原 哲 2011 「弥生社会における環濠集落の成立と展開」『総研大文化科学研究』第7号 総合研究大学院大学文化科学研究科  
庄田慎矢 2009 『青銅器時代의 生産活動과 社會』學研文化社  
山崎頼人 2010 「環濠と集団」『古文化談叢』第65集 九州古文化研究会

## 発掘調査報告書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7 『芳洞里遺跡』  
慶南考古學研究所 2000 『道項里 末山里遺跡』  
慶南考古學研究所 2002 『陝川盈倉里無文時代集落』  
慶南考古學研究所 2002 『晋州 大坪 玉房 1. 9 地區 無文時代 集落』  
慶南文化財研究院 2006 『蔚山 蓮岩洞環濠遺跡』  
慶南文化財研究院 2003 『金海 北部 消防道路 開設區間内 大成洞環濠遺蹟』  
慶南發展研究院歴史文化センター 2007 『泗川 芳芝里遺蹟Ⅱ』

- 
- 慶南發展研究院 歴史文化センター 2009 『馬山 嶺北 網谷里遺蹟』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一釜山間 高速道路 建設區間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清道 松邑里 楡湖里 内湖里遺跡—』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8 『星州 上彦里遺蹟』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6 『挑開 新林里遺蹟』  
高麗大學校考古環境研究所 2005 『梨寺里 月岐里遺蹟』  
國立中央博物館 1993 『梁山 多芳里貝塚 發掘調査報告』  
國立晋州博物館 2001 『晋州 大坪 玉房 1 地區 遺蹟 I, II』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1 『昌原 上南先史遺蹟』  
畿甸文化財研究院 2004 『水原 栗田洞遺蹟』  
畿甸文化財研究院 2007 『華城 東鶴山遺蹟』  
畿甸文化財研究院 2008 『烏山 佳長洞遺蹟』  
畿湖文化財研究院 2012 『華城 雙松里遺蹟』  
東國大學校慶州キャンパス 博物館 1996 『錫杖洞遺蹟』  
東亞大學校博物館 1998 『梁山 平山里遺蹟』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晋州 耳谷里 先史遺蹟 II』  
東義大學校博物館 1999 『山清沙月里遺蹟』  
馬韓文化財研究院 2010 『順天 德岩里遺蹟 II』  
釜慶大學校博物館 1998 『山清沙月里環濠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蔚山檢丹里마을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 1998 『金海鳳凰臺遺蹟』  
仁荷大學校博物館 2000 『仁川 文鶴洞 先史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東川洞聚落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蔚山川上里聚落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2007 『大邱 月城洞 1261 番地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大泉洞 497-2 番地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2010 『慶山 林堂洞 環濠遺蹟』  
蔚山文化財研究院 2009 『蔚山校洞里 192-37 遺蹟』  
蔚山文化財研究院 2010 『蔚山達川遺蹟 3 次 發掘調査』  
蔚山文化財研究院 2011 『蔚山 明山里遺蹟』  
中央文化財研究院 2003 『蔚山 新峴洞遺蹟』  
中央文化財研究院 2005 『清原 大栗—細橋間 道路工事區間内 清原 大栗里・馬山里・楓井里遺蹟』  
中原文化財研究院 2007 『安城 盤諸里遺蹟』  
忠清文化財研究院 2008 『牙山 上星里遺蹟』  
韓國文物研究院 2012 『晋州 草田 環濠聚落遺蹟』  
漢陽大學校 博物館 2005 『富川 古康洞 先史遺蹟 第 4 次 發掘調査 報告書』

(蔚山文化財研究院)

(2014 年 4 月 24 日受付, 2014 年 11 月 7 日審査終了)

## **Attributes of Surrounding Moat Remain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and Their Changes during the Bronze Age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Korea**

**LEE Soo-hong**

This article reviews the previous studies of 48 surrounding moat remain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from the Bronze Age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Korea to examine the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 moats in each period and their transitions.

In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surrounding moats appeared in the early Bronze Age, as evidenced by the Daeyulri Site in Cheongwon, where three narrow moats were constructed winding along the contour line. Judging from the excavated artifacts, we can tell that they were attributed to immigrants from the Liaoning region.

The oldest evidence of the establishment and spread of surrounding moats is dated to the late Bronze Age. At that time, surrounding moats were built mostly in Yeongnam, though there seem to have been regional differences. For example, in the Ulsan area, all surrounding moats were constructed on hills, and in many cases, a village was encircled by a single moat. Judging from geographical and locational features, we may assume that they were used to separate ritual spaces. This article refers to a unit consisting of a moat and the hamlets from which you can see the moat as a hub village. Meanwhile, in the Jinju area, in general, large-scale villages in river basins were enclosed by moats. Some villages even had wooden barricades, which indicates that moats were used rather for protection or as boundaries. Such security might have been intended against attacks not only from outside people but also from wild animals. Like in the Ulsan area, moats were built around large-scale villages considered as hub villages in the Jinju area. The establishment of surrounding moats is considered to have marked the start of the latter half of the Bronze Age and the rise of powerful individuals that enabled large-scale construction works such as moat building.

In the early Three Kingdoms Period of Korea saw the widespread of surrounding moats across the peninsula. At that time, their meaning as ritual constructions was maximized. In general, a main moat was paralleled by narrower outer moats. Many of them were located on the top of hills, forming a circle. In the late Three Kingdoms Period, the number of constructions of surrounding moats dropped sharply. In the meantime, wider moats were built, and some were even protected with wooden fences to enhance security, which seems due to mounting tensions in the region. The reasons for the drastic decrease of surrounding moats at that time are apparently because walled cities were introduced from

---

---

the Chinese dynasties and Koguryo and because small units of “moat villages” were integrated into a bigger unit as the peninsula was being united.

Key words: the Bronze Age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Korea, surrounding moat, category and chronology, functionality theory